

1980년 오월 광주는
저항과 나눔과 자치의
공동체였습니다.
혼연일체로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었던 것,
그곳에는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주먹밥은 오월 광주의 가슴이자
희망입니다.

오월의 창	02
물의 내력 서해성	
공간+중언 · 천주교 광주대교구 ②	04
5·18사진전과 부산 자갈치시장 아줌마들 김창현	
기획 · 역사는 흐른다	12
법이 없어서 '놈'이 어깨 펴고 다녔을까? 김요수	
'이번 정류장은 문화전당역입니다' 정영대	
"그 민주주의 제가 꼭 지킬게요" 김창현	
"역사를 지우고 어떻게 역사를 기억해?" 정상철	
잊혀진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30
국가보다 무서운 권력의 탐욕 정상철	
5·18 기록물 지면 전시 ②	38
기록에 삶이 있고, 역사가 있다	
주먹밥이 만난 사람 · 버마의 정신, 탄 케와 민꼬나잉	40
버마 현대사가 내린 두 명의 선물 정상철	
너머+넘어 · 전기의 분노, 밀양 송전탑	46
밀양 송전탑 할매들 위험하다, 왜 765kV 송전탑이 문제인가? 김창현	
들불야학을 잇다	52
인문학으로 '들불야학'을 잇다 황해윤	
아시아토크 · 타이베이에서 열린 홍성담 판화전	55
'동아시아에서 그 누가 예술활동으로 처형당하라' 서 승	
오월문화사 · 5월 민중가요	60
'그대 노래가 사라진다 해도 나는 그대 노래를 부르리' 정영대	
5·18왜곡 톨아보기 ②	66
'장계범 독침사건'의 진실은? 오승용	
오월+여성 · 80년 오월, 여성은 왜 소외됐는가?	70
총을 든 남성만이 5·18의 주인공일까? 이정우	
독자의 소리 · 5·18기념재단소식 · 편집후기	75

- 표지인물: 버마민주화운동을 이끈 두 핵심축, 탄 케와 민꼬나잉
- '주먹밥'은 5·18기념재단이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주먹밥'에 실린 글의 내용은 5·18기념재단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 5·18기념재단
 편집장 정상철
 편집위원 정영대 김창현
 담당 5·18기념재단 교육문화팀(062-360-0534) 박지선
 주소 502-26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5·18기념문화관 1층
 전화 062-360-0518 전송 062-360-0519 홈페이지 www.518.org
 제목글씨 윤공희 대주교(천주교 광주대교구)
 디자인 도서출판 심미안(062-651-6968)
 발행일 2013년 9월 6일

물의 내력

서해성 | 소설가, 성공회대 외래교수

5·16 직후 쿠데타세력은
한국 표준시를 30분 당겨
일본 표준시에 맞추었다.
류큐(오키나와)에서 기동하는 미군 비행기,
배와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간주권 상납이었다.
그 뒤 한국인은 날마다 삼십분씩
일찍 살고 있는 셈이다.

조선의 물은 장수 수분리에서 흘러지고, 동아시아의 물은 류큐에서 갈라 친다. 수분리 등고선이 울어 남으로 섬진강, 북으로 금강, 동쪽으로 낙동강이 흐른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는 조선 지리학이 이보다 명징한 땅이 없다.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를 한 방울 물로 알 수 있는 곳이 수분리다. 물이 산을 넘으려 할 때 자연과 인심은 상하고 만다. 4대강이 배역지세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이것이다.

류큐의 물이 산발한 채 섬과 섬들을 기르고 일본 열도를 떠밀면서 북쪽으로 나아가면 봄이다. 한 줄기는 왼쪽으로 감아 돌면서 붉은 기운을 머금는다. 이 물에 적도에서 장어가 실려 오고, 멸치를 남해에 흩뿌리고 조기가 뱃머리를 부딪으며 서해를 채운다. 꽃을 따먹으면서 온다는 황복은 깎아지른 단애를 낀 임진나루를 거쳐 파주 적성 자지포에 배를 문지른다. 겨울이면 얼어붙는 이곳으로 김신조가 내려온 게 68년 일이다.

서해 물길은 류큐를 거쳐 온 물이 제주를 안고 빠르게 파고 들어 장산곶까지 몸을 민 다음 산동에서 꺾어내려 중국 기슭을 훑고 주산군도에 이르러 자신을 잊는다. 이 물길에 산 여인이 심청들이다. 이름마저 물 맑을 청이다. 원홍장이라는 이름이 전하는 물의 여인이 두진(섬진) 포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 바다 너머 어디메에 안착한 뒤 향리 곡리(곡성)로 불상을 보냈는데 턱이 둥근 살진 관음상이요, 그 기록이 관음사기로 조계산 송광사에 남아 있다. 관음불상은 일제가 찍은 사진에 생생하다. 섬진강 하류 일대는 백제·신라 적 이름이 강도로 쟁겨사 진감국사비에 박혀 있는바 처용설화에서 알 수 있듯 동해 울산과 더불어 회회 사람들 배가 달던 물길이었다.

여름 물에 제수이트들이 인도 고아 선교기지에서 길을 얻었



으니 서양 신이 옷깃을 물에 적시며 나가사키에 당도했다. 이들과 동행한 이들은 신의 책뿐 아니라 화약 붙이는 무기도 가져왔는데 이를 고쳐 만든 게 조총이다. 임진년에는 침략자를 따라온 군중 신부 세스페데스가 경상도 웅천에서 신의 이름을 알렸다. 진해 일대는 이때부터 왜인들이 놀이던 거점이었다. 3백여 년 뒤에도 일본 해군은 이곳에 정박한 채 러시아 함대를 기다렸다가 출병(러일전쟁)했고 그 전쟁 결과 조선은 식민지로 떨어졌다.

세례 받은 이들은 조선에서는 내쫓겼고, 일본에서도 끝내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이윽고 숨어 사는 가쿠레 기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이 되었다. 이들이 섬긴 성상 이름이 마리아 카논(관음)이다. 쫓기는 자들이 죄를 면하고자 붙인 슬픈 관음 마리아다. 마리아상을 불상과 절충해서 숨긴 채 기렸던 까닭이다.


암스텔강에 댐을 막아 세력과 자본을 일으킨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이 물에 얽혀 왔고, 하멜은 길을 잃었다. 이내 제주에서 몸을 빼쳐나간 그가 밀린 급료를 받고자 나가사키 포구 앞 인공섬 데지마에 머물면서 회사에 낸 보고서가 <1653년 바타비아발 일본행 스페르베르호의 불행한 항해일지>, 곧 '네덜란드 배 제주도 난파기'로 흔히 '하멜 표류기'다. '지나가다'는 뜻을 지닌 바타비아는 사라진 그들 족속 일파 이름을 지명으로 삼은 것으로 동인도회사 식민 본부가 있던 지금 자카르타를 이른다.

5·16 직후 쿠데타세력은 한국 표준시를 30분 당겨 일본 표준시에 맞추었다. 류큐(오키나와)에서 기동하는

미군 비행기, 배와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간주권 상납이었다. 그 뒤 한국인은 날마다 삼십분씩 일찍 살고 있는 셈이다. 동원체제와 휴식 없는 노동 효율성 강조에서 나온 것이지만 '빨리빨리'가 우연만은 아닌 것이다.

한국전쟁 내내 북쪽은 그 오키나와에서 직선으로 비행해 시행되었다. 80년 5월에도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공중경보 통제기(E-3A) 2대가 광주를 향해 날아왔다. 일본 요코스카와 필리핀 수빅을 떠난 미 제7함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코럴시호 또한 이 물길을 타고 올라왔지만 훗날 밝혀진 대로 광주 시민들이 잠시나마 기대했던 민주주의 구원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제주 강정은 그 물길의 배꼽 자리다. 위로 평택항, 아래로 오키나와와 연계한다. 이는 마리아나제도, 사이판, 괌 축선을 거쳐 과달카날 전투로 유명한 솔로몬제도에서 수직으로 태평양을 가리며 불침의 항공모함이라 부르는 산호섬 미드웨이에서 정점을 찍고는 옆으로 진주만을 품고 있는 하와이에 닿는다. 미국 태평양수역군 태평양전쟁 진격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날 이후 태평양은 미국의 내해가 되었다.

산에만 분수령이 있는 게 아니라 물에도 분수점이 있다. 물의 순리다. 바다의 제국화는 이를 거스르는 일이다. 물에도 내력이 있다. 물고기는 때에 맞춰 돌아오지만 한 번 온 군대는 돌아가기 어렵다. 강정을 망각하는 건 한반도 바닷물 내력 전부를 잊는 일이다. 깨어진 구럼비바위는 한낱 돌덩이가 아니라 설화적, 역사적 무게로 그 바다를 떠돌고 있는 참이다. 



천주교회 광주대교구는 5·18사진전, 광주비디오 제작 등 광주의 진실을 알려 내는 일을 끊임없이 진행했다. 사진은 84년 남동성당의 5·18추모미사.



5·18사진전과 부산 자갈치시장 아줌마들

- 한국 천주교회의 5·18 진실 알리기 운동(2)

글 · 김창현 | 편집위원

사진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공

“필요하면 써라. 내가 찍은 사진은 내 소유가 아니다. 광주의 것이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써라”

정보과 형사들이 제책사까지 들이닥쳤다. 자료집이 완성되면 바로 압수하려는 것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책이 완성되면 뺏길 게 뻔했다. 광주 대교구청 평신도 직원들도 제책사로 몰려왔다. 대책이 필요했다.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간사 김양래 씨가 제책사를 지키고 있는 정보과 형사들을 불러냈다. 따졌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 교구청 직원들이 봉고차와 승용차를 제책사 앞에 댔다. 작업 중인 책을 무조건 차에 실었다. 빠르게 양립다리를 건너 금남로3가 가톨릭센터로 들어왔다. 경찰들은 가톨릭센터를 에워쌌다. 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마침 그날 광주대교구청에는 전주교구 문정현 신부와 문규현 신부가 일을 보러 와 있었다. 두 신부가 나섰다. 다른 물품인 것처럼 문 신부의 차에 책을 몰래 실었다. 책은 전주로 옮겨졌다. 제본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여서 칼로 일일이 잘라 책 모양을 만들고 그

것을 전국에 뿌렸다. 광주대교구가 제작한, 광주항쟁 관련된 활동을 모은 첫 자료집 『광주의거자료집』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85년의 일이다.

광주대교구는 5·18 직후 5·18구속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구명활동을 전개했다. 사람부터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당시 신동성당에 부임해 있던 장형달 신부가 중심이 되어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구명운동을 펼쳐 나갔다. 장 신부와 함께 활동한 김양래 씨는 “서명운동을 하며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5·18에 대해 언론에 난 것만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꼭 해야 했다. 당시 마산교구 교구장 장병화 주교님은 구속자 가족들이 가서 얘기하며 막 우니까,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서명을 해주셨다. 대구대교구 서정길 대주교님은 보수적인 분으로 유명해 아예 허락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야기 꼭 들어주시고 보좌주교님에게 교구 사제단 서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써 주셨다”고 당시의 일을 기억한다. 그렇게 4,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대교구는 구속자·부상자 가족들의 어려운 생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쌀과 학자금 병원비 등을 지원했다.

“내가 찍은 사진은 내 소유가 아니다. 광주의 것이다”, 5·18사진전

천주교회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5·18 당시의 사진을 찾는 데도 열심이었다. 은폐된 진실을 알려내는 데 생생한 사진 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수소문을 통해 광주를 취재했던 기사를 찾아가면 ‘사진이 없다’고 내놓기를 꺼렸다. 신변상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뉴스 나경택 사진기자는 달랐다. “필요하면 써라. 내가 찍은 사진은 내 소유가 아니다. 광주의 것이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써라”며 사진사용을 허락했다.

87년 5월, 5·18민중항쟁 이후 최초로 광주 5·18 당시 기록된 사진들을 전시한 ‘5·18 사진전’이 가톨릭센터 2층 미술관에서 개최됐다. 나경택 기자의 사진과 외국 잡지와 신문에 나온 사진들이 전시됐다. 사진작가 임무택 씨는 흑백사진을 확대하는 확대기를 가지고 와서 전시를 도왔다. 사진설명은 화가 홍성담 씨가 도맡았다.

반응은 뜨거웠다. 소문으로만, 유언비어처럼 들리던 그 당시의 참혹했던 모습을



항쟁 이후 최초로 열린 5·18 사진전.
500미터 정도 줄을 설 정도로 성황이었다.

눈으로 확인하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 전시회는 보름 동안 계속됐다. 김양래 씨는 당시 관람자 수를 하루 평균 1만여 명, 전시기간 총 15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가톨릭센터에서 광주은행 본점까지 100~15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블록을 가서, 뺑 돌아서 거의 500미터 정도 줄을 섰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오후 3시 정도 되면 껏말을 들고 제일 뒤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끝났다고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시민들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전시회에 가져온 일이었다. “가지고 있던 컬러사진을 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필름을 내놓고,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다음날 갖다 붙이고 했어요. 계속 입소문이 나서 사진 전시회가 끝나고 나니까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광주전시회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5·18 사진전’을 열 수 있었다. 사진과 사진설명을 복사해서 서울·대구·부산으로 보낸 것이다. 시민들 도움이 컸다. “시민들이 와서 사진 복제하는 부분을 다했어요. 날밤 새우면서 푹푹 작업해서 보냈죠.”



5·18 9주기 초모미사. 신부들과 신자들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주교관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기계 돌려 발행한 5·18사진집

87년 당시 부산교구 중앙성당 주임신부였던 박승원 신부는 부산에서 열렸던 '5·18 사진전'을 기억하며 "5·18사진전이 부산에서 6월 항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광주사진전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민심이 안 바뀌었을 것이다"고 말한다.

"아침에 사진전 열자마자 자갈치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보고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 몰고 오고 그렇게 줄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곡했다. 그래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영정도 차려놓고 했었다. 보안사 사람들도 왔다. 보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 하며, 그 사람들도 몰랐다. 부산의대에서도 단체로 관람하고, 그때 사진전 허가가 안 나 사순절 핑계를 대고 했다." 부산전사회는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회원들이 많은 활동을 해주었다.

광주대교구 정평위는 전시회가 끝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나눠 볼 수 있도록 사진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제작한다. 5·18 실체를 담고 있는 최초의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다. 제1판은 2만5,000권을 제작한다. 서울과 부산으로 옮겨 그곳에 보관하면서 배포했다. 제2판, 제3판, 제4판까지 합산하면 10만 권이 넘을 것으

로 추정된다.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발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작업이 전두환 정권의 감시를 피해 진행돼야 했다. 책 발간 비용부터 마련해야 했다. “주교회의 김정부 신부님께 연락 1,000만 원을 받고 함세웅 신부님을 찾아가니까 수원교구 신부님을 소개 그 신부님이 500만~600만 원을 주었다. 광주대교구에서 2,000만 원을 만들었다.”

필름작업은 서울에서 진행됐다. 사진집에 맞는 천연색 필름작업을 하는 곳이 광주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곳은 불안했다. 광주의 한 출판사 사장의 추천으로 서울의 원색분해소에 맡겼는데 문제가 터졌다. 업자가 제작한 필름을 내놓지 않은 것. “업자가 전두환 찢어 죽이자고 하는 플래카드를 차 앞에다 건 사진, 그 사진을 보고 필름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평위 간사 김양래 씨, 광주대교구 윤용남 신부, 생활성서사 편집장 김동인 수녀가 찾아가 담판을 지었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고 천주교 내부적으로 쓸 거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그 부분만 파고, 당신도 돈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오후까지 협상해서 돈 주고 필름을 가져왔지요.”

인쇄는 광주 대흥출판사에서 해 주겠다고 했다. 200페이지가 넘는 2만5,000권, 제본이 또 문제였다. 제본소는 하루에 한두 번씩 정보기관의 감시가 늘 있었다. 정평위는 윤공희 주교를 찾아갔다. 제본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했다. 대건신학교나 수도원도 정보과형사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윤 대주교는 주교관 지하 주차장을 추천했다.

제본기계를 샀다. 대흥출판사 사장이 제본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지원했다. 밤을 지새우며 작업을 했다. “야간 순찰이 돌면 기계소리를 줄여야 되고 셔터 앞에 큰 매트리스 받쳐놓고 책 완성을 했어요.” 김양래, 홍세현, 오자남 그리고 조선대 학생 열명이 보름 남짓 진행했다. 완성된 책은 서울 까리타스 수녀원에 1만권, 부산 송도성당에 5,000권 등 분산을 시켜 세상에 내놓았다.

부산 중앙성당의 신자였던 문정섭 씨는 부산의 각 동 조직과 대학교를 찾아다니며 5·18사진집을 판매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 어떻게든 알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했다. “내 누이가 당한 것 같은,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 한다는, 시민

들 깜짝 놀라죠. 이게 진짜냐고 그래요.” 정보과 직원이 따라다녔지만 개의치 않았다. “짧어서 그랬는지 제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팔았어요. 간이 완전 배 밖으로 나왔죠.” 책 판매 수익금은 성당 신부님과 상의해 김대중 대선자금으로 부쳐주었다고 한다.

화장지에 글을 써서 자막작업, 5·18비디오 제작

87년 5·18사진전과 사진집 발간, 그해 5·18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정평위가 주도한 ‘광주비디오’ 제작이다. 87년 초 계림성당 장용주 신부가 독일에서 귀국하며 독일과 미국 등에서 방영됐던 5·18 영상물을 모아 비밀리에 가지고 들어온다. 장 신부는 번역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다. 화가 홍성담, 홍세현, 김양래, 사진작가 임무택 씨가 모여 비디오제작에 들어간다. 원본비디오와 우리나라 텔레비전 주사선방식이 달라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서울 세운상가 암시장에서 방식을 바꿔준다는 걸 알았어요. 한 시간짜리 비디오가 30만원 정도의 큰 돈이었는데, 바꿀 수 있는 데가 방송국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간에 당직하는 방송국 직



87년 장용주 신부가 독일에서 가져 온 5·18영상물을 토대로 ‘광주비디오’를 제작했다.

원들한테 맡기는 거죠.”

내용을 추가하는 편집은 모두 수작업이었다. 편집기가 없었다. “자막작업은 화장실에 글을 써서 감아가면서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면 글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더빙은 가톨릭센터에서 밤에 하고요.”

원본 테이프가 만들어지고 대량복사를 하기 위해 서울로 가져갔으나 해주려는 곳이 없었다. 직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윤공희 주교님 비디오, 장용주 신부님 비디오 등 비디오 4~5개를 돌렸어요. 가톨릭센터 6층에 방 하나 만들어서요. 그런데 한 시간에 비디오 숫자만큼밖에 테이프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진집 판매한 돈으로 비디오 열 개를 사서 테이프를 5,000개 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해 바로 성당에서 상영했어요.”

김양래 씨는 “비디오 하나가 광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작업이었다”며 “홍성담·홍세현·임무택 씨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날밤을 새며 헌신적으로 해줬던 것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5·18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진상규명의 중요한 역할

천주교회 광주대교구에서 진행한 국내 첫 ‘5·18사진전’과 ‘5·18사진집’, 그리고 ‘5·18영상’ 작업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5월 진상규명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 또한 87년 이후 학생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식을 깨는 첫 단추가 되기도 했다.

‘5·18사진전’ 개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경택 기사는 “사진전시회가 전국을 순회하고 사진자료집이 사람들의 손에 손을 거쳐 이제 대중들이 광주의 진실을 이미 공유했을 때에 가서야 언론들은 그 사진들을 한 장씩 화보로 신기 시작했으며 중앙일간지 1면에 광주 5·18에 관련된 사진들이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천주교회 광주대교구의 ‘5·18 진실 알리기’ 작업은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에 대해 정치 사회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5

법이 없어서 '놈'이 어깨 펴고 다녔을까?

시대의 '문제수괴' 전두환

글 · 김요수 | 자유기고가

이름 짜한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아'였다고 고백하는 일 많다. 멀쩡한 의사노릇 팽개치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빠져든 안철수, 편안 한 변호사노릇 던지고 반칙과 특권에 도전한 노무현도 문제아다. 그들이 의사, 변호사가 되어 따듯한(?) 날이 오기를 바라며 복돋아주었던 언저리 사람들은 속 부글부글 끓었겠다.

문제아는 상식에서 벗어나 엉뚱한 일을 벌이거나 규칙 어기기를 일삼 아 제 존재를 알리려 했다. 한마디로 이미 짜여진 사회질서를 어그러뜨 리고 틀어지게 하는 아이다. 문제는 순수한 생각을 가진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문제는 원칙이 적힌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잊속만 챙기는 사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못된 짓·못할 짓 다 하고 돈과 힘 쥐는 사회

힘없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힘없는 사람들을 두들겨 뺐다면? '문제적 경찰'이 아니라 '망태기 경찰'이다. 망태기는 전혀 쓸모없는 것을 이른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검찰이 억울한 사람들

억지는 거짓말부터 부른다. 29만 원밖에 없다고, 억지를 부리려고 아바위를 친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속이는 틀에 부끄러운 것을 감춘다. 보라고 그린 그림을 돈처럼 창고에 숨긴다. 숨기려고 가짜를 앞세운다. 세금마저 도망 시키려고 가짜회사 '블루 아도니스'를 만든다.



© 민중의 소리

전 재산 29만 원이라며 버티는 전두환, 과연 그에게서 추징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을까?

을 만들어낸다면? '문제적 검찰' 이 아니라 '꼭두각시 검찰' 이다. 꼭두각시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바른 사실을 똑바로 쓰라는 언론이 힘 센 놈의 걸만 훑아 준다면? '문제적 언론' 이 아니라 '양가발이 언론' 이다. 양가발이는 잇속 때문에 남에게 달라붙는 사람이다. 좋게 말해서 권력남용權力濫用, 주어진 힘을 함부로 썼다는 말이다. 언제부터가 권력남용 뒤에는 '일벌백계一罰百戒' 가 따라 다닌다. 한 사람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인데, 그냥 말로만 끝난다.

국민을 '지키라' 는 군대를 이끌고 국민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놈을 어느 신문이 '문제적 인간' 이라 불렀다. '성공한 쿠데타' 여서 '벌' 을 줄 수 없다는 야릇한 말에 끄덕이던 언론까지도, 오죽하면 잘못된 말이라고 버린 '문제' 라는 말을 꺼냈을까. 너무도 뻔뻔하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으니 그랬겠다. 어찌면 '문제야' 를 뚫고 나오면 우뚝 서니까 따라한 것일까. 노

무현이 번쩍 깨닫게 하고, 안철수가 바이러스를 죽이고, 이수근이 웃음을 안기고, 에디슨이 세상을 밝혀서(!?) 아, 창고에 득시글득시글한 비싼 미술품이 맘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놈은 ‘문제적 인간’ 이 아니라 ‘문제 수괴’ 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고 시대를 뭉개고 역사를 해코지하고도 떳떳하게 산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가? 대한민국에서는 말 된다. 우리나라를 갈아뭇간 일본의 왕에게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에 지원한 자(者)가 쿠데타를 일으켜 18년 넘게 대통령을 했으니까. 만주군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토벌한 군대라고 말모이(사전)에 나왔다. 토벌은 무력으로 쳐 없앤다는 뜻이다. 그 혈서와 쿠데타의 딸이... 갑자기 목이 멘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나라 때문이 아니라, 못된 짓, 못할 짓 다 하고서도 놈들이 힘과 돈을 쥐고 있어서다.

누리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시간 끌기

그러니 ‘성공한 쿠데타’ 라며 우쭐거리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하면 된다’ 고 우기며 반칙을 원칙 삼는다. 앙가밭이는 그들의 말과 하는 짓을 ‘알흠답게’ 받아쓰고 콩고물을 얻어먹는다. ‘알흠답게’ 는 아름답지 않은 일을 아름다운 척 꾸미는 짓을 비꼬는 요즘 말이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영혼을 팔았다’ 는 말이 떠오른다. 받아쓰다가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망태기는 ‘옴’ 을 들고 ‘그림’ 을 꾸짖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며 숨을 이었다. 때리다가 죽이기도 했다. 꼭두각시는 힘 센 사람 입맛에 맞게 벌을 꿰맞추어 벌을 주어 알랑거리며 ‘배때지’ 를 채웠다. ‘배때지’ 는 배때기가 표준말이지만 여기엔 배때지가 더 어울린다. 벌을 주다가 죽이기도 했다. 가까이에서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죽음! 겁나 기막히다. 놈들의 교활한 생각과 간사한 말과 잔인한 행동은 교묘한 기록으로 남겨 우김질하며 들이댄다.

우김질은 틀린 것을 옳다고 억지 부리는 것이다. 억지는 거짓말부터 부른다. 29만 원밖에 없다고, 억지를 부리려고 야바위를 친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속이는 틈에 부끄러운 것을 감춘다. 보라고 그린 그림을 돈처럼 창고에 숨긴다. 숨기려고 가짜를 앞세운다. 세금마저 도망시키려고 가짜회사 ‘블루 아도니스’ 를 만든다. 여기서 잠깐, 아도니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미소년인데,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녀석이다. ‘블루 아도니스’ 는 ‘싱싱한 아도니스’ 쯤 되겠는데, 아마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지만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지은 이름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말할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귀태’ 라는 것, 사실은 그놈의 아들이 먼저 쓴 셈이다.


우김질의 마지막은 헛것을 크게 부풀려 진실을 덮는다, 그렇게 해도 먹히지 않으면 오히려 덮어

씩우거나 탄죽을 건다. 놈들이 스스로 만든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우긴다. 살아 있으면서 누리고, 누리는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놈들의 ‘도돌이표 이론’에 말려들어 대꾸하다 지친다. 지치면 그들의 풍족함에 넋을 잃고, 우리의 가난함에 한숨 쉰다. 우리는 삶이 가난하고 놈들은 논리가 가난하다. 우리의 가난한 삶은 놈들의 풍족한 삶에 빨려 들어가고, 우리의 널찍한 논리는 어느새 놈들의 풍족한 삶을 대변하는 데 써먹는다. 이용당하는 것이다. 풍족함 앞에 꺾이는 논리와 논리 앞에 엉겨주춤한 풍족함이 서로 다룰 때, 그놈은 시시덕거리며 공짜 골프를 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문제적 인간

아, 골프! 우리나라는 곳곳에 산이 있고 골짜기마다 물이 흐른다. 아름다운 강산, 눈이 시리게 푸르른 산에 잔디로 밑줄 짝 그어 골프장 만들었다. 우리는 글을 읽다 ‘옳거니!’ 하며 책에 밑줄 그었는데, 가끔 연못도 있다. 이 연못을 ‘어렌지’ 좋아하는 놈들은 ‘워터해저드(water hazard)’라고 한다. 골프에서 그거 골치 아픈 모양이다. 골프는 워터해저드에 공을 넣는 경기가 아니라서 피해야 하나까. 국민을 무너뜨리듯 자연을 허문 곳에서, 국민에겐 해저드(장애물) 안기고 놈은 해저드를 피해 다닌다, 그것도 공짜로.

골프에서 골치 아픈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오럴해저드oral hazard’란다. 오럴? 입으로, 아무 말이나 지껄이며 상대를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 경기를 망치게 하는 짓이란다. 당구에서 ‘말 켄세이’와 비슷한 모양이다. 당구 칠 때 상대가 치기 어렵게 공을 갖다 놓는 것을 ‘켄세이’라고 하는데, 실력이 안 되면 그 짓을 주둥아리로 한다. 우리말로로는 헤살이라 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헤살꾼이라 한다, 몸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떠드는 놈들, 꼭 있다. 놈들은 워터해저드 피하고 오럴해저드 일으켜 모럴해저드 챙긴 놈들이다. 모럴해저드moral gazard? 제 잇속 챙기려 사회 망치는 놈들의 짓이다. 이미 챙겼으니 죽을 때까지 노는 것인가. 남으면 물려주고?!

보통 절에는 마음과 몸을 바로 세우러 간다. 놈이 백담사 갔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설마하니 ‘돈 숨키는 연구’ 하러 간 줄 알았겠나? 넓은 이마 팍팍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놈한테 이번에 또 ‘훈장(?)’ 주었다. 법을 못 만들어서 놈을 가만 두었을까, 법이 없어서 놈이 어깨 펴고 다녔을까. 빌붙은 양가밭이, 손발노릇 망태기, 앞잡이 된 꼭두각시, 돈으로 주물럭주물럭. 놈들은 사회를 조물조물. 내버려 두니 문제가 생기고, 사라졌던 문제가 가깝신거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문제적 인간이 나대며 버틴다. 전두환법은 놈에게 은밀하고 치밀하게!! 

| 기획 · 역사는 흐른다 |

‘이번 정류장은 문화전당역입니다’

그 이름 ‘옛 전남도청’은 왜 지워졌나?

글 · 정영대 | 편집위원
사진 · 김창현 | 편집위원



옛 전남도청의 일부는 무참히 파괴됐고, 5·18민주광장은 문화를 입혀 새 이름으로 재포장되고 있다.

“이번 정류장은 문화전당역입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광주 시내 버스 안내방송이다. 옛 전남도청 혹은 민주광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구체적인 형상이 무너지고 고유 이름이 사라진 지금, 옛 전남도청과 민주광장은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아닌 거대한 박물관 혹은 일탈된 기념의 광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그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건물 54m 가운데 24m가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문화전당으로 들고나는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고집을 끝내 꺾지 않아서다. 물론 광주시민들의 암묵적 동의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5·18 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도청별관 철거에 반대하며 1년이 넘도록 접거농성을 벌였었다. 하지만 협상교착과 공기지연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슬그머니 손을 놓아 버렸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다.

옛 전남도청 본관에 잇대진 별관의 일부가 뜯겨져 나가면서 절개된 단면에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빨간 속살이 드러났다. 기실 도청본관은 1930년 12월 5일 완공 당시 빨간 벽돌로 만든 2층짜리 건물이었다. 해방이후 백색 도료로 외관을 정비하면서 지금까지 흰색을 유지하고 있다. 1975년에는 본관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했고 그 때 새로 지어 덧댄 건물이 바로 별관이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별관에서는 14명의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도청별관에도 붉은 생채기가 남겨진 것이다. 광주시민사회가 도청별관 철거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은 도청을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5·18 사적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도청본관이 아닌 별관의 일부가 철거된 만큼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그 정도라도 지켜낸 것이 어디냐며 애써 위안을 삼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행태도 보인다. 정말 그런가? 도청 별관을 훼손한 행위는 문화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현대판 ‘반달리즘’ 이자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형상에 가한 일종의 테러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도청별관 철거론자들의 의도대로 별관을 헐고 들어선 출입구는 미구에 구체적인 민주주의 형상을 지우고 우상을 들여오는 개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그 개선문을 통해 5·18 민주광장을 헤집으며 종횡으로 행진하게 될 ‘그 무엇’ 이 자못 궁금하지 않은가. 그것은 1980년 5월 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그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이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역사를 탈색하고 표백한 세탁물에 문화와 경제의 그럴 듯한 포장을 입히는 일이다.

돈의 위력이 만든 광장 르네상스

바야흐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조성 방안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쳐난다. 가히 광장 르네상스라 할만하다. 모두가 개선문을 통해 들어온 돈의 위력 때문이 아니겠는가. 5·18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팔아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후안무치에 다름 아니다. 이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은 더 이상 피와 눈물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자 기회의 공간으로 목하 변신중이다.

광주시는 5·18민주광장을 '민주평화광장' (1단계),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원(2단계), 국립민주평화공원(3단계)으로 조성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1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청 분수대주변을 포함한 1만6,002m²의 공간을 박석마당과 녹지 등

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수대 주변 7,485m에는 화강석 재질의 박석(薄石)을 깔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동판과 5·18 당시 분수대 현장집회 사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상무관과 종각주변 7,069m에는 녹색공원을 조성해 고사한 회화나무 주변에 만들어질 330m 크기의 소공원과 연계를 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금남로 1가에서 3가까지 5차로와 인도 518m에도 각각 화강암 판석을 깔아 도심서행을 유도하고 민주화 상징공간에 대한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2~3단계 사업을 통해 민주광장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원, 국립민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전일빌딩과 광주 동부경찰서 등을 포함한 금남로 일대 2만3,750m에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을 만든 뒤 국립민주평화공원으로 이름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을 기억하는 나쁜 방식

옛 전남도청은 여러모로 불편한 공간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부끄러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옛 전남도청은 국가가 가진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징 공간이다. 국가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행사될 때, 국민들이 나쁜 지도자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했을 때, 그리고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국가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다. 학살의 피해자들은 비록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복권이 됐지만 차가운 주검이 되거나 부상과 끔찍한 기억으로 모진 인고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해자들은 피의 학살에 대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죄를 안고 살아야 한다. 역사는 그 원죄에 대한 기록이자 끊임없는 기억의 순환을 통한 단죄여야 한다. 도청은 또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본질을 드러내고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허상을 견어내 버렸다. 수구세력들에게는 두고두고 ‘못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꼬리표다. 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장면이다.

살아남은 자들도 부끄럽기는 매한가지다. 5월 27일 최후의 도청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을 화인처럼 남겼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

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1980년 5월 27일 새벽 3시. 그때까지도 전남도청에는 200여 명 남짓한 시민군들이 남아 있었다. 광주시민들은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라는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곧이어 새벽 4시. 중무장한 탱크와 헬기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뒤흔들었다. 3공수와 7공수, 11공수 등 특전사부대와 31사단 등 정규군 2만여 명이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도청을 공격했다. 시민군 17명이 숨지고 295명이 체포됐다. 계엄군은 오전 5시 22분 도청을 완전 장악하고 상황은 종료됐다. 그리고 아침 7시 30분 아침 출근길, 광주시민들은 옛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군가소리를 들었다.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투를 벌였던 계엄군이 부른 승리의 노래, 개선의 노래였다. 이날 각종 언론매체들은 빨갱이를 등에 업은 폭도들을 우리 군이 용맹스럽게 섬멸했다고 분탕질을 했다.

그리고 33년의 세월이 흘렀다. 옛 전남도청의 일부는 무참히 파괴됐고 목을 놓아 민주주의를 부르던 5·18 민주광장은 문화를 입혀 새 이름으로 재포장되고 있다. 80년 5월 군사독재와 제도언론이 분탕질해 놓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총과 칼 대신 돈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을 해체한 것은 광주가 민주주의의 형상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 결과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도취돼 민주·인권·평화라는 담론을 덩석 물더니 도청이라는 구체적 형상을 파괴하면서 기념비적 랜드마크를 세워 우상을 섬기겠다는 발상 말이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절박한 외침에 담긴 기억의 방식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었다.

산 교육장 지우고 박물관 짓는 꼴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보편적 전형을 획득한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현상의 바다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제약 당하면서 구체적 사건이라는 형상의 지류와 강물이 만나 만들어진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우상보다는 부끄러움이다. 지난 30년 동안 5월의 민주주의는 집단기억에 많은 빛을 졌다. 그 집단기억은 시대와 불화를 통한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원재료로 한다. 광주가 우상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5·18의 구체적 형상들이 속절없이 사라져갔다. 우상을 경제적 앵벌이의 수단으로 앞세우고 제 살길을 도모하면서

부터다. 우상을 숭배하면 부끄러움은 자연 설자리를 잃게 마련이다. 언제부턴가 광주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 도청별관 해체의 공모가 가능했던 이유다. 부끄러움 대신 자긍심을, 불편함 대신 편안함을 선택해서다. 그때 민주주의는 형해화하고 질식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옛 전남도청은 구체적 형상으로 남아야 한다. 5·18민주광장은 우상을 기념하는 닫힌 공간이 아닌, 형상의 기억을 재현하는 열린 광장이 돼야 한다.

“이번 정류장은 문화전당역입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광주시내버스 안내방송이다. 옛 전남도청 혹은 민주광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구체적 형상이 무너지고 고유의 이름이 사라진 지금, 옛 전남도청과 민주광장은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아닌 거대한 박물관 혹은 일탈된 기념의 광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청 최후 27일, 그리고 도청별관 절개. 또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그 장소와 역사에 맞는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우상의 성전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형상의 기억을 재현해내는 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우상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형상을 깨뜨리려는 일체의 유혹에 맞서야 한다. 옛 전남도청을 향한 출전의 노래는 항상 민주주의를 향한 부단한 전진이어야 한다. ㉮



옛 전남도청이 있어야 할 것이 문화전당역으로 바뀌었다.

“그 민주주의, 제가 꼭 지킬게요”

광주 정암초등학교 6학년 3반 5·18수업

글·사진 김창현 | 편집위원

이정희 학생은 “5·18이 시위가 아니라 투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려요.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참여하고 싸우신 것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다.

임상효 학생은 5·18 역할놀이를 하며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주먹밥 만들기가 쉽지 않았단다. “5·18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치료해 줄 의사도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치료를 돕는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주먹밥을 만드는 아주머니 역할을 맡았는데 ‘나눔’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큰일을 하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주먹밥은 5·18 당시 시민들이 만들었



서울 보훈청이 교체를 요구한 5·18공모전 학생작품.



주먹밥 만들기, 시민군 체험 등 5·18수업을 진행한 정암초 6학년 3반 학생들과 방주용 교사.

던 주먹밥과 조금 달랐다. 학생들은 주먹밥 위에 밥풀로 국화모양을 넣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의 뜻이다.

주먹밥 위에 국화모양 넣어 돌아가신 열사 추모

지난 5월 광주 정암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은 ‘주먹밥 나눔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5·18수업을 진행했다. 방주용 교사는 “그날의 공동체 의미를 학생들이 가슴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업을 했다”고 한다. “학교 수업이 사회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을 제대로 배우면 사회의 많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학생들이 알 수 있죠. 나눔, 공동체, 상생 등 올바른 사회의식을 기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5·18에 대해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5·18 전후의 사건 전개 과정, 5·18이 추구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할



주먹밥 만들기 체험에서 학생들은 열사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주먹밥 위에 국화 모양을 새겼다. 한 학생이 5·18수업 소감을 얘기하고 있다.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았던 학생들도 폭력 사태 정도만 알고 있었지 최초발포나 시민군이 등장하게 된 까닭 등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업은 5·18 당시의 사진들과 영화 <화려한 휴가> 편집본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학부모도 ‘참관’이 아닌 참여를 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모둠을 나누어 시민이 되고, 시민군, 의사, 간호사 역할을 만들었다. 5월 그날의 광주시민이 되어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주먹밥을 만들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며 주어진 역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해내도록 했다. 당시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역할놀이 체험 후에는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애국가’를 함께 불렀다. 방 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단순히 ‘기록된

역사 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역사' 로 만드는 수업이 되길 바랐다"고 말한다. 주민혁 학생은 "애국가를 듣고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다. 많은 학생들이 울먹였다.

그날의 공동체 의미를 학생들이 가슴에 담았으면...

40분 동안 진행된 1교시 수업, 하지만 그 준비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방 교사는 "수업 시나리오를 짜는데 한 달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던질 질문 하나도 여러 번 고치고 고심했어요."

학생들에게 '5·18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시민군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이 주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무섭고 두렵겠지만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학생은 "무서워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방 교사는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고 가르쳤다. "배우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게 교육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게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표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지요."

방 교사는 2011년 교사로 임용됐다. 이제 3년째, 교사가 된 첫 해부터 5·18수업을 진행했다. 5·18의 참된 의미를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다.

방 교사의 아버지는 80년 오월의 복판에 서 있었다. 당시 전남대 상대 학생회장이었고, 방주용 씨의 누나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80년 오월은 그에게 역사이기 이전에 삶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강하게 보이려 하셨지만 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게 5·18은 늘 고민의 대상이었고 5·18을 알아가면서 공동체, 나눔, 희생의 가치가 잊히지 않기를 바랐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5·18은 큰 가르침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5·18에 대한 역사왜곡이 심하잖아요. 올바르게 지키고 가르쳐야죠."

‘님을 위한 행진곡’ 들으며 5·18 열사’에게 편지

1997년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해마다 국가차원의 추모식이 연례행사로 치러지지만, 최근 5·18을 왜곡 폄훼하는 사태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최근인 올해 5월 서울지방보훈청이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공모전 수상작 9편 중 2편에 대해 교체를 요구했다. 2편의 작품은 중학생 시 1편과 초등학교 그림 1편이다. 해당 시는 5·18 정신을 봄나무에 빚댄 ‘5월의 봄나무’라는 시로 ‘꽃향기가 물들던 봄날, 피 냄새를 풍기는 강한 봄바람, 묘지 앞에 있던 나무는 흔들리고 나뭇잎은 떨어져 나간다. 평온하고 고요한 봄날 총성으로 내리는 비, 나무는 비에 잠기고 나뭇잎들은 쓸쓸히 떠나려 간다’는 내용이다. 서울보훈청은 ‘피 냄새’와 ‘총성’이라는 시어와 군인이 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시민의 모습을 문제 삼았다. 사업회 측은 “서울보훈청은 지난해에도 초등학교의 수상작 ‘29만원 할아버지’를 문제 삼았고 올해도 본연의 의무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상과 예술에 대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던 군부독재시대의 망령을 부추기는 움직임으로 판단,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교육부가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5·18민중항쟁’ 용어를 걸고넘어지며 5·18이 계획된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한 것처럼, 국가기관이 나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부터 5·18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남대 사학과 최영태 교수는 “5·18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으로보다는 역사화된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5·18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및



5·18수업 소감을 공책 가득히 글로 정리했다.

대학에서 5·18은 역사나 사회과목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수준이다”고 우려하며 “체험학습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영상물, 시와 소설 기넨관 등도 5·18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및 공고회를 위해 5·18 기억과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암초 6학년 3반 학생 25명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며 하늘에 있는 ‘5·18 열사’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5·18수업을 마무리했다. 강수빈 학생은 “오늘 학교에서 5·18 역할놀이를 하면서 그 당시의 현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 저도 만약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를 한다면 시위에 참여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광주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니까요!”라고 썼다. 진우 학생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열사님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민주주의, 제가 꼭 지킬게요.”

“역사를 지우고 어떻게 역사를 기억해?”

옛 전남도청 수위실 철거

글 · 정상철 | 편집장
사진 · 김향득 | 사진가

이미 오월은 더 이상 풍문이 아니다. 머리가 으깨지고 젓가슴이 잘리는 참혹한 영상을 볼 사람은 다 봤고, 입을 사람도 또한 다 읽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겠다. 여전히 오월은 풍문일 수 있다. 광주는 여전히 오월을 기억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 훗날 기억을 가다듬게 만드는 역사를 품은 건물이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광주의 현실 안에서 오월은 여전히 풍문일 수밖에 없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이 보초를 서던 장소로 활용됐던 옛 전남도청 정문 옆 수위실이 소리 소문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먼 저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완전히 사라질 위기였던 도청 별관은 그곳을 지키려는 시민적 움직임에 막혔다. 오랜 논란 끝에 2010년 12월 절름발이 답안이 나왔다. 전남도청 별관 전체 54m 중 30m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24m를 헐어 골격만 남긴 뒤 구조물 설치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통로로 사용하는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합의대로 지난 6월 말 별관의 일부가 철거됐다. 그리고 7월 말에는 정문 옆 수위실도 함께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다. 문제는 철거의 과정이다. 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구 도청 별관 24m 철거와 연계된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와 5월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



소리 소문없이 철거된 옛 전남도청 수위실.




일부가 철거된 전남도청 별관 건물.

성해 판단하기로 추진단과 합의했다”며 “총탄 자국이 있는 벽돌 등 중요 잔해물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인데 지난 6월 말 별관 철거 때나 지난 7월 말 수위실 철거 때도 한 차례의 논의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말 아픈 건 철거 잔해물들의 폐기다.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2년 간 논란을 벌였는데, 정작 철거 때 광주는 역사 공간에 대해 너무 무심했다. 전주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7일 시민으로부터 문화전당내 도청 별관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논란이 컸던 것에 비해 철거는 일반 건축공사처럼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특히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물들은 보존해야 했는데 모두 폐기 처분한 부분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당시 도청 별관 철거 반대 싸움을 지휘했던 장원섭 전 상황실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나 광주시가 옛 도청 철거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말했다. “도청 별관 철거를 합의한 만큼 문제 삼긴 어렵지만, 철거하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라도 했으면 어떻게 생각했다. 도청 앞 나무도 죽으면서 냇을 위로하던데 5월 그날에 죽은 영령도 위로하지 못한 채 건물을 철거한 것은 너무 초라했다. 전남도청 별관을 일부라도 보존키로 한 것은 5·18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번 철거에서 그런 면을 볼 수 없었다.”

잔해물조차 지키지 못한 도청 별관과 수위실 철거 앞에서 광주는 지금 아픈 질문과 마주선다. “역사를 지우고 어떻게 역사를 기억해?” 



폐허로 방치된 홀름스크의 제지공장.

국가보다 글·사진 정상철 | 편집장 무서운 권력의 탐욕

- 일본·러시아·남·북한, 모두에게 버려진 사람들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항구로 자신들을 싣고 갈 배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끝끝내 배가 오지 않을 때,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코르사코프항에 와보지 않고는 사할린 조선인들의 슬픔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야 했다. 한 겨울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낯선 땅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때 조선은 백성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손바닥만한 땅에 농사를 부치면 국가(탐욕한 지배계층)가 세금으로 다 가져갔다. 갓 태어난 아이가 굶어죽어도 세금은 내야 했다.

1863년 그렇게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블라디보스토크(연해주)에 닿았다. 그것이 서럽고 아프고 잔혹하게 쓸쓸했던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사의 시작이었다. 8월 초입 한국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있을 때 연해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5·18기념재단의 '5·18민주화운동 수업사례 우수교사 국외연수' 동행 취재였고, 주제는 '잊혀진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였다.

연해주에서 조선인들의 숨결은 아직 선명했다. 다만 아픈 것은 그 숨결이 남의 땅에서 서럽게 버터낸 한을 마디마디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주한 조선인들을 자기 목적에 맞게 철저히 이용한 뒤 그들 모두에게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는 방식으로 버렸다. 연해주의 조선인들은 겨울이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중앙아시아 혹한의 땅에서 집도 없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서늘하게 내려앉은 것은 '국가 없는 사람들의 한' 이 아니었다. 19세기 허울뿐인 나라였던 조선이 백성을 돌보지 못해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나라로 떨어진 건 아주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현상이면을 돌아보면 국가로 포장된 지배 권력들의 탐욕이 숨어 있다.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강제노역했던 홀름스크 제지공장(위). 일본인들에게 집단화살 당한 사할린 한국인의 묘(아래).

조선의 권력들은 제 편안한 안위를 위해 백성들을 쥐어짰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일만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혁명(민란)을 일으켜 잡혀 죽거나 나라를 버리고 국경을 넘어야 했다. 러시아의 권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 얻은 땅 연해주를 완전한 자국 영토로 만들기 위해 조선인들의 이주를 반기다가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조선인들을 죽음의 경계로 내던졌다.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뒤흔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이고, '계급의 상징화' 였다. 그러니까 영화 <설국열차>에서처럼 "난 앞이고, 넌 뒤야.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야"와 같은 것이다.

사할린에서도 역사와 삶이 결합된 그 서늘한 진실은 다르지 않았다.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거의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당시 조선은 공식적으로 없는 나라였고, 사할린 조선인들의 국적은 공식적으로 일본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사할린의 조선인들을 버렸다. 1946년 '미·소귀환협정'에 의해 사할린에 살던 일본인 29만 명은 일본으로 귀환시켰지만 조선인은 송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사할린에 버려졌다.

박승의 전 사할린대학교 교수는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와 좁은 갯도에서 밤낮없이 일본을 위해 석탄을 캔 조선인들을 일본은 버렸다. 러시아도 사할린에 남은 조선인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국자로 방치시킨 뒤 철저히 차별했

다. 사할린에서 조선인들은 집도 가질 수 없었고, 변변한 직장도 다닐 수 없었다. 1990년까지 45년 동안 러시아 사람과 계급이 달랐다”고 말했다.

연해주 조선인들은

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됐나?

연해주는 초원이 아득히 넓었고, 슬펐다. 두만강을 넘은 조선인들의 눈에 어찌면 그곳은 ‘신세계’였을 것이다. 주인 없이 버려진 땅, 겨울이 1년의 절반이지만 짧은 봄과 여름이면 배고픔을 덜어낼 수 있게 보였다. 그 신세계를 찾아 조선의 이주민들이 몰려들었고, 1925년에는 25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연해주에 거주했다.

연해주는 1860년 청과 러시아가 맺은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에 편입됐다. 1872년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기지가 세워졌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연해주는 러시아 대표적인 해군 군사도시다. 영토를 가졌지만 실질적 지배를 위해서는 그 땅에서 사는 국민이 필요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척을 위해 카자흐스탄 농민들은 이주시켰지만 별 성과를 보지 못했다.

러시아는 처음 밀려드는 조선 이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반겼다. 상황이 돌변한 것은 1930년대다. 소비에트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러시아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조선 이주민들은 경계의 대상이 됐다. 한인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숙청이 단행됐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가 시작

됐다. 조선인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쉬베토,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로 버려졌다. 그곳들은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벌판이었다. 제정 러시아 때부터 유배지로 악명 높았던 버려진 땅이었다. 무려 17만1781명의 조선인이 힘들게 일군 삶의 영토에서 쫓겨나 차갑고 삭막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됐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엔 어느 도시에나 레닌광장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레닌 광장에서 만난 레닌의 시선은 깊었다. 소련은 이미 붕괴했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었다. 내려앉은 레닌의 시간, 달라진 사람들의 삶을 동상은 쓸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옆에 블라디보스토크역이 있다. 철길이 서늘했다. 단지 그곳이 9,288km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시발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역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혁명 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답기 때문인 것도 아니었다. 거기서 시작된 철길엔 조선인들의 슬픈 역사적 서사가 아프게 담겨 있다. 강제이주 때 조선인들은 그 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중앙아시아에 버려졌다. 철길을 보고 있으면 강제로 기차에 올랐던 조선인들의 불안과 공포가 느껴진다.

블라디보스토크엔 많은 조선인들이 살았고, 조선인 마을도 많았다. 1874년 처음 생긴 개척리는



최재형 선생이 살았던 집.



진로한족중앙총회 건물.

콜레라 창궐로 무너졌다. 러시아 정부는 개척리 조선인들을 도심 외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한인촌의 하나가 '신한촌'이다. 그곳은 조선인들의 삶의 터였고, 해외로 망명한 독립지사들의 근거지였다.

세월이 바람처럼 흘러가고, 지금 신한촌엔 조선인들의 숨결이 없었다. 스탈린 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가 숲처럼 빼곡하게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다만 그곳에 한때 신한촌이 있었음을 알리는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었다. 기념비에는 조선인들의 오래된 한들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고 있는 동안 왼쪽 가슴 아래가 먹먹했다.

최재형의 땅·발해의 땅, 우스리스크

연수 둘째날 버스를 타고 우스리스크로 달렸

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끔 비포장도로가 끼어드는 길을 2시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러시아어로 '늘지대'라는 뜻이다. 버스는 우수리스크 보로다르스카야 38번지에 멈췄다. 독립운동가 최재형(1858~1920) 선생이 살았던 집이다. 그는 1911년 신한촌에서 창설된 '권업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부회장은 홍범도 장군이다. 권업회는 독립군을 양성하고, 동시에 정부 수립을 목표로 삼은 '대전학교'를 북만주에 세웠고, 1914년에는 대한 광복군 정부도 수립했다.

붉은 벽돌 벽 한 칸에 '최재형의 집'이라는 작은 표식이 붙어 있었다. 단지 그게 전부였다. 현지 러시아인이 살고 있어 건물 안은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최재형이 살았던 집, 안중근이 하얼빈(爾濱)으로 떠나기 직전 머물렀던 집. 건물 외곽만을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 나오는 게 많이 아쉬웠다.

최재형의 집 근처에는 전로한족중앙총회 건물이 있다. 지금은 러시아의 학교로 사용되고 있어 역시 내부를 볼 수는 없었다. 이 공간에서 3·1운동 이후 최초의 해외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민의회가 태어났다. 거대한 의미를 품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만난 것도 안내판 하나가 전부였다. 차갑게 버려진 역사가 내내 아픔 아팠다.

우수리스크 수이푼 강가에는 이상설 선생 유허비가 있다. 1907년 일제 침략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라는 고종의 특명을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독립운동가 이상설, 그는 1917년 망명지인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병사했다. 그의 유언은 이랬다.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했으니 몸과 유품은 불태우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유언에 따라 그는 화장됐고, 라즈돌리노에 강변에 뿌려

졌다.

우수리스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이며 발해의 땅이다. 발해의 옛 성터를 찾아가는 길, 사방에 지평선이 펼쳐진 아득한 초원이 열렸다. 발해의 역사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건 매한가지다. 우수리스크는 말하고 있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버려진 조선인들의 슬픔이 잠든 섬

사할린은 조선인들에게 아픈 섬이다. 1944년 일본은 당시 그들의 영토였던 남사할린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 보냈다. 그들은 사할린의 수많은 탄광과 벌목장에서 노역했다. 비행장과 도로, 철도 건설에 동원되기도 했다. 사할린 조선인들의 진짜 비극은 해방 이후 시작됐다.



발해의 성터, 거기 버려진 우리 역사가 있다.

1945년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사할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사할린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지만 러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가 북위 50도 이남 남사할린을 일본에게 내줬다. 그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 러시아는 곧바로 일본인들의 출국을 금지시킨다.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도 국적은 일본이었다. 1946년 일본은 '미·소협정'에 따라 자국민들을 송환시킨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송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지 인본인과 결혼한 한인남

자와 그 가족 1,541명만 송환시켰을 뿐이다. 4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은 멀고 먼 러시아의 섬, 사할린에 버려졌다.

그 도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가 있다. 센터 앞에 세워진 비 하나가 마음을 후벼다. 비문은 '이중징용'을 증언한다. 1944년 연합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일본은 사할린에서 채굴한 석탄을 본국으로 수송하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사할린에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다시 배치한다. 징용이 두 번 겹쳤기 때문에 이중징용이다. 사할린에서 3,000명의 조선인이 다시 일본 규슈로 재배치됐다.

이중징용 당했던 조선인들 중에는 사할린에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일본은 가족의 동반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중징용으로 가족과 생이별하고 사할린에 남은 이산가족은 무려 3,600명이었다.

윤상철 사할린한인노인회장은 "이중징용으로 떠난 사람들은 일본이 폐망하고 대부분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평생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하고 가슴에 한을 쌓았다. 연락두절과 생사불명의 세월이 60년이 됐다. 그들의 가슴에 평생 어떤 한이 두껍게 쌓였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코르사코프항, 사할린 조선인들의 슬픔

러시아는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살지만 그들은 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앞에 세워져 있는 '이중징용비'.



일본인들의 송환이 이루어졌던 코르사코프항.



망향의 탑.

아 국민이 아닌 무국적자였다. 제대로 집을 가질 수도 없었고, 배울 기회도 차단됐다. 심지어 거주지에서 다른 도시로 갈 경우 3일 전에 신고를 하게 했다. 그러나 친척이 갑자기 상을 당했을 경우 신고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 신고하지 않고 움직이다가 두 번 걸리면 월급 절반가량인 벌금을 내야 했고, 3번 걸리면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했다. 그 이유로 투옥된 조선인이 1년이면 50명에 가까웠다. 조선인들에게 국적이 허용된 것은 1990년 소련이 붕괴된 다음이다. 40년을 넘게 사할린 조선인들은 무국적의 굴레 위에서 살았다.

연수의 마지막 일정은 코르사코프항이었다. 그 아픈 바다를 잊을 수는 없겠다. 일본인 송환이 이루어졌던 항구다. 일본은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데려 가면서 나중에 조선인들도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믿고 조선인들은 항구로 배가 들어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결국 배는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체념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항구의 바다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항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에는 '망향의 탑'이 세워져 있다.

박승의 전 교수는 말했다.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항구로 자신들을 신고 갈 배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끝끝내 배가 오지 않을 때,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코르사코프항에 와보지 않고는 사할린 조선인들의 슬픔을 안다고 할 수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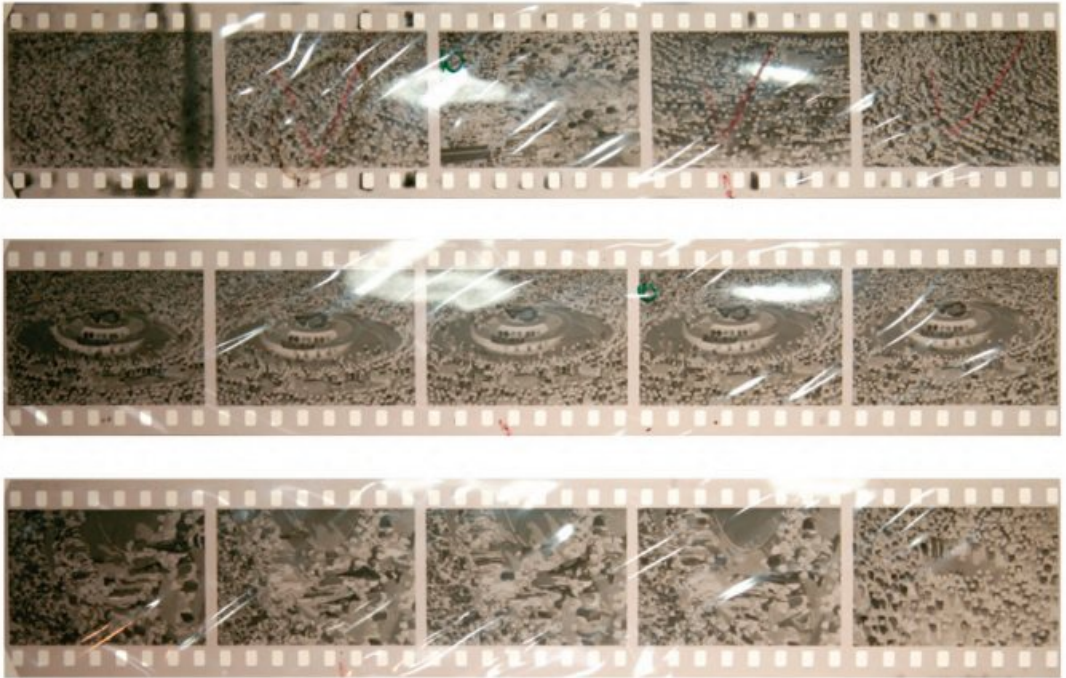
기록에 삶이 있고, 역사가 있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18기록물 전시



80년 5월 16일 당시 연합뉴스 나경택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 전남도청 앞 광장 분수대를 중심으로 2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열었다. 행사가 끝나고 시민들은 대대적인 촛불행진을 벌였다. 아무도 5·18기록사진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때 나경택 기자는 자신이 찍은 모든사진을 선뜻 광주에 되돌렸다.

2011년 5·18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그 해 시민들은 광주가 가장 잘한 일로 그 사건을 꼽았다. 30년을 넘게 지켜온 광주정신을 세계는 인정했다. 당시의 상황을 선명하게 담은 사진, 신문기사들, 누군가의 빛바랜 일기장, 5·18 수사기록들. 개별로는 별 게 아니지만 이것들이 모두 합쳐지니 광주의 정신이고 역사다. 피 같고, 눈물 같은 기록들을 『주먹밥』에서 지면 전시한다.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찍은 나경택 기자의 필름 원본.



버마민주화운동을 이끈 두 명의 핵심 축, 탄 케와 민꼬나잉.

버마 현대사가 내린 두 명의 선물

- 탄 케와 민꼬나잉

글·정상철 | 편집장
사진·안갑주 | 사진가

2004년 11월 16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된 직후
그가 남긴 말은
버마 민주화운동을 상징한다.
“버마 민주화를 도왔던 국제사회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도움은
이미 충분했다.”
그 말에 담긴 궁극의 의미는
‘내부의 힘’이다.

지난 5월의 일이다. 버마 국적의 두 사내가 광주에 왔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둘은 버마 민주화운동을 이끈 핵심 축이다. 두 사람이 살아서 만난 것부터가 어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사람은 버마 밖에서 20년 넘게 무장투쟁을 이어온 버마학생민주전선 탄 케 의장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마 안에서 싸운 88세대학생대표단의 수장 민꼬나잉이다. 두 사람이 버마 민주화를 위해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같았다.

1988년 8월, 군사정권의 폭압에 반기를 든 100만 명의 버마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은 국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란 이름을 내걸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8일부터 군사정권의 무차별 발포가 시작됐다. ‘8888항쟁’의 시작이었다. 군사정권의 탄압에 인정 같은 것은 없었다.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총질이 진행됐고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됐다.

군인들에 쫓긴 청년과 학생 1만여 명은 타이, 중국, 인도 국경지역으로 빠져나가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탄 케는 무장투쟁단체인 버마학생민주전선의 일원이 됐다. 인도 국경에서 총을 들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벌여나갔다. 시간이 지



두 사람이 만나 광주에 온것은 어쩌면 기적같은 일이다.

날수록 싸움은 외롭고 처절했다. 지도부의 분열과 국경혁명 고착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학생군들이 하나둘 전선을 떠났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버마학생민주전선은 2001년 북부 카친해방구에서 야전의료팀을 꾸려왔던 탄 케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버마의 무장투쟁단체는

탄 케가 이끄는 버마학생민주전선이 유일하다.

민꼬나잉의 길은 조금 달랐다. 모두가 국경지대로 빠져나갈 때 그는 랭군에 남아 와해된 버마학생회연합ABFSU를 재건했다. 민꼬나잉이 랭군에 남으며 했던 연설의 한 대목은 아직도 버마인들의 가슴을 울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 떠나다 나는 내부(버마)에서 다시 태어난다.” 지하에 숨어 조직을 움직이던 민꼬나잉은 1989년 3월 체포됐다. 3년의 불법감금 뒤 군사법정에 섰고 15년 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인세인형무소 독방에 갇혔다. 그에겐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 책도 신문도 읽을 수 없었다.

유일한 무장투쟁단체의 지도자, 탄 케

광주의 어느 호텔에서 이른 아침 만난 탄 케의 얼굴은 들떠 있었다. 스스로도 자신이 광주에 와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 감격을 탄 케는 이렇게 표현했다. “80년대에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을 때 언론을 통해 광주를 알게 되었다. 우리도 이런 항쟁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생각했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필리핀 민주항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큰 꿈이 되는 항쟁이었다. 한마디로, 새벽에 뜨는 해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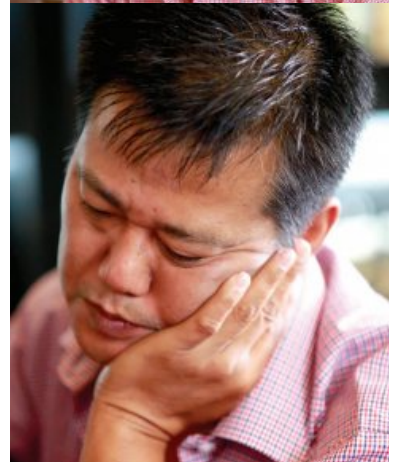
탄 케가 ‘8888항쟁’ 이후 24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그 감격의 깊이를 알 수 있다. 1988년 12월 그가 고향 ‘짜옥세’를 떠날 때 어머니에게 두 달 후 돌아온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그가 다

시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24년이 필요했다. 국경지대로 빠져나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그가 택한 혁명의 방법이었다.

혁명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국경의 산악지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동료들이 하나 둘 망명을 떠나고, 군사정권에 체포되거나 피격됐다. 그는 끝내 버텼다. 단 한 명의 동지만 곁에 있어도 끝내 싸울 생각이었다. 그가 이끈 버마학생민주전선은 세계 학생운동사에 유례없는 무장투쟁 기록을 남겼다. 무려 25년을 국경 산악지대에서 싸웠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솔직히 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대화를 하는 것이다. 군부와 평화회담을 갖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중립적인 대우와 인정을 받으며 평화 회담과 정치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부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포함한 극도의 압박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시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킨 첫 학생들이자 사람들인 반면에 승리를 안고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사람들이다. 우리는 고향에 몰래 숨어들어 갈 수도 없다. 다만 우리의 깃발을 들고 낮에 돌아가야만 한다.”

그 외롭던 싸움을 버티게 했던 또 다른 힘은 어머니였다. 탄 케의 집안은 버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가족사 안에 버마 민주혁명투쟁의 역사가 잠든다. 탄 케의 아버지 소원 마웅은 만달레이대학 학생회장으로 1962년 네 윈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하자 전국적인 독재타도운동을 이끌었다. 당연히 집보다 감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8888항쟁' 도 주도했고 군사법정에서 무려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풀려났지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2000년 생을 마감했다. 탄 케의 형 탄독 역시 '8888항쟁' 의 신호탄이었던 랑군공대 시위를 이끌었고 오랫동안 국경에서 싸웠다. 지금은 망명해 버마노동조



버마민주전선 탄 케 의장.



88세대학생대표단의 수장 민꼬나잉.

합기구BLSO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탄 케는 버마학생민주전선 대표로 24년 만에 버마 땅을 밟았다. 버마학생민주전선은 2011년 1월부터 군복에서 민간복으로 갈아입은 버마 정부와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탄 케는 버마 정부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버마 국내로 들어와 변화를 파악하는 현실점검여행을 제안했고, 버마 정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24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다. 24년 만에 만난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았다. 아직 싸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힘에 따라 우리 가족 모두는 전적으로 이 투쟁에 참여했다. 어머니는 나의 영웅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내가 다시 어머니를 만나는 날, 우리의 싸움도 끝나 있을 것이다.”

모두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도자, 민꼬나잉

민꼬나잉에게도 광주 방문은 매우 특별했다. 2009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민꼬나잉을 2009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수상을 위해 광주에 올 수가 없었다. 2007년 '샤프란 항쟁(승복혁명)'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시위행진을 조직한 혐의로 65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탓이다. 민꼬나잉은 첫 마디부터 광주인권상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피력했다.

“당시 버마 시민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공조죄 때문에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우리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도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우리는 마치 우리만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광주인권상 수상 소식을 듣고 우


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도 인정을 받는 옳은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버마 시민사회가 한국의 다른 모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버마 민주화투쟁을 현재까지 이끌고 있는 유일한 지도자다. 탄 케 역시 “민꼬나잉은 유일한 지도자이고,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눈 앞에 죽음을 뻔히 보면서도 랭군에 남았고, 일생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가 감옥에 갇힌 18년 동안 버마 민주화투쟁은 길을 잃고 헤맸다.

모든 동지들이 국경지대로 떠날 때 그는 왜 랭군에 남았을까? 사실 죽을 작정이었다. 제가 죽어도 또 다른 민꼬나잉이 나타날 것을 믿었다. “그때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당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 명의 민꼬나잉은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다’고 선언했다. 먼 거리를 갈지라도 민꼬나잉과 같은 사람들은 아주 많다.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료들 모두가 민꼬나잉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감옥, 도로, 정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 그들이 나의 신체를 해칠 수는 있어도 내 영혼, 정신만은 없애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당시 민꼬나잉은 배 위의 선장이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배에 있어야 한다 생각했다. 그는 배의 선장이었고, 살아있는 한 배를 몰아야 할 책임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다. 민꼬나잉은 늘 한결 같았다. 2004년 11월 16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된 직후 그가 남긴 말은 버마 민주화운동을 상징한다. “버마 민주화를 도왔던 국제사회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도움은 이미 충분했다.” 그 말에 담긴 궁극의 의미는 ‘내부의 힘’이다.

감옥에서 나와 그는 ‘88세대 학생들’을 결성하고 내부의 힘을 키웠다. 서명 캠페인과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정치범 석방운동도 펼쳤다. 2007년 생필품 가격이 치솟고, 8월 19일 그는 400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랭군 도심으로 진출했다. ‘8888항쟁’ 뒤 19년 만에 버마에서 기적처럼 일어난 시위였다. 8월 21일 그는 체포됐지만 그 시위는 9월 샤프란 항쟁으로 이어졌다.

결에 한 명의 동지만 있다면 민꼬나잉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오래 전 한국 시민사회가 독재에 도전했다. 그래서 한국 독재정권은 독재를 계속 할 수 없음을 알고 포기했다. 어느 날부터 아프리카, 아랍 등 전 세계의 시민들이 독재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가 모두 연계되어 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은 우리의 롤 모델이다. 맞잡을 시민의 손이 하나만 있어도 나는 싸울 것이다.” 

밀양 송전탑 할매들 위험하다, 왜 765kV 송전탑이 문제인가?

글·사진 이용인 | 시인, 밀양시 부북면 주민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88번 송전탑 공사 현장인 능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매 할배들이 굴삭기를 지키고 있다.

는 한가운데 송전탑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어도, 과수원을 가로지르며 송전선이 지나가 땅을 모두 못 쓰게 되어도 송전탑이 들어서는 자리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아래쪽 땅(선하지)만 보상 대상이다. 게다가 송전선에서 몇 십 미터 떨어진 땅은 보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은행 담보도 안 되고 부동산 매매도 안 된다. 그러니 꼼짝 없이 송전탑을 끼고 살아야지 어디로 갈 수도 없다.

한낮의 기온이 38도, 39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도 밀양의 할매들은 76만5000볼트 고압 송전탑에 맞서 싸우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는 고리1·2·3·4호기 핵발전소가 있다. 한전은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를 세웠고, 3·4호기를 건설중이며, 앞으로 5·6호기도 지을 것이라 한다.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도시로 공급하기 위해 한전은 발전소가 있는 울주군 서생면에서 양산, 밀양, 창녕으로 이어지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송전탑은 154kV가 대부분이고 345kV가 가장 고압이다. 그런데 765kV는 345kV의 5배 전력량을 수송한다. 송전탑의 높이만 해도 80~140미터, 40층 아파트와 맞먹는다. 이런 송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자파 피해이다. 그 동안 한전은 '송전선로 주변의 전자파는 833mG(밀리가우스) 이하로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833mG는 고농도 전자파에 단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수치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내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765kV 송전선로의 80m 이내 거주자는 3.7mG의 전자파에, 345kV 송전선의 40m 이내 거주자는 3.8mG의 전자파에 각각 노출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3mG 이상에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이 1.7배 증가한다는 점을 인정해, 4mG 이상의 지속적인 전자파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밀양의 경우 765kV 송전선로의 80m 안쪽에 집이 있고,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늘 지나다녀야 하는 길이 있다. 밀양의 주민들은 그 동안 다른 지역의 답사를 통해 765kV보다 훨씬 낮은 345kV 송전선이나 변전소 주변에서 집단적으로 암 환자들이 나타나고, 가축들이 기형인 새끼를 낳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현지 주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지 않는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편입할 수 있



밀양시 북북면 화악산 평밭마을로 올라가는 입구 움막.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24시간 교대로 움막을 지켰다.

는 전원개발촉진법(電源開發促進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논 한가운데 송전탑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어도, 과수원을 가로지르며 송전선이 지나가 땅을 모두 못 쓰게 되어도 송전탑이 들어서는 자리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아래쪽 땅(선하지)만 보상 대상이다. 게다가 송전선에서 몇 십 미터 떨어진 땅은 보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은행 담보도 안 되고 부동산 매매도 안 된다. 그러니 꼼짝 없이 송전탑을 끼고 살아야지 어디로 갈 수도 없다.

왜 9년 동안 끌어왔나?

765kV 고압 송전선로의 문제는 핵발전소 위주의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 때문에 생겨났다. 최근 전력 위기의 가장 큰 원인도 23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6기가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중 고리1호기는 2007년에 설계 수명 30년을 넘겼고, 월성 1호기도 설계 수명이 만료되었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신고리 1호기,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멈추었고, 증기 발전기 튜브 손상으로 한울 4호기가 멈추었다. 위험은 후쿠시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쳤다. 이처럼 위험한 핵발전소 신고리5, 6호기를 짓지 않고, 장거리 송전을 하지 않으면 밀양의 송전탑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칠팔십 대 할매, 할배들이 대부분인 주민들과 한전의 길고 긴 싸움은 2005년 얼렁뚱땅 넘어간 주민설명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민들은 2007년 12월에야 송전선로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2009년에 ‘갈등조정위원회’를, 2010년에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답을 찾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위해 진입로를 내고 나무를 베어냈으며, 주민들은 온종일 산에서 버티며 전기톱을 막아섰다.

한전의 입장은 ‘공사는 계속되며 보상 협의 외에는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로 요약된다. 주민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전문가에게 맡겨 검토, 확인해 보자며 이렇게 제안했다.

- ①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2013년 말 완공), 4호기(2014년 말 완공)에서 생산될 전력은 신양산-동부산 송전선로,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와 연결해서 보내자.
- ②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신고리핵발전소 5호기, 6호기가 완공될 10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3대안(초전도체,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울산-함양고속도로 지중화)을 그 동안 향상된 기술력으로 검토하자.
- ③ 공사 강행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대안을 검토할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자.

주민들은 단기적으로 ①번과 같은 방안, 장기적으로는 ②번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자고 제안했다. 765kV 송전탑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벌어질 일이며, 핵발전소를 통한 장거리 송전은 국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5월 20일부터 공사를 강행했다. 산에서 굴삭기를 막아서던 할매 할배들이 기절하고 쓰러져 20여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이 벌어져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왜 전문가협의체는 답을 내지 못했나?

5월 29일 국회 산업위 중재로 공사가 중단되고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주민 추천 3명, 한전 추천 3명, 여야 추천 3명, 총 9명의 위원으로 활동에 들어갔으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전 측 추천위원 문 모 교수의 보

고서 초안 6개의 파일 가운데 5개가 최초 생성 제목과 날짜가 같아 대필 또는 베껴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게다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엔터리 시뮬레이션을 검증 없이 그대로 베껴 실제로 한 것처럼 내 놓았다. 한전 측 추천위원 장 교수의 지중화에 관한 파일은 본인이 이 문제를 알기도 전인 2012년 10월 18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전에서 파일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주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① 한전이 제출한 시뮬레이션이 엔터리이며, ② 신고리4호기까지 완공된다고 해도 기존 345kV 3개 노선으로 송전이 가능하며, ③ 765kV가 오히려 불안정하며(전력거래소, 감사원 보고서), ④ 지중화 관련 비용이 2조7천억 원으로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협의회 백수현 위원장은 3가지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는, 토론이나 표결 없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했던 주민들의 바람은 무산되었다.

지금 밀양의 할매들이 위협하다

그 동안 한전은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불가능하다.”, “보상만 협의하자.”며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고, 전문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주민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또한 밀양 아닌 다른 지



밀양상공회의소에서 시내에 내건 플래카드. 생존권이 걸린 주민들의 희생이 누구에게 '아름다운 양보'가 되는가?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127번 공사 현장의 천막.
할매 할배들 소식을 듣고 대전에서 달려왔다는 아가씨들의 미소가 환하다.



영남루 계단에서 매주 열리는 '송전탑 반대 촛불문화제'.
8월 10일, 113번째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 보상금 몇 푼에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망칠 수는 없다. 대안은 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 깨끗이 해결된다. 기존 선로에 용량을 늘리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며, 지중화 방안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밀양에서는 할매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0, 21일 밀양을 방문해 송전탑과 관련해 '주민 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송전탑 문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던 엄용수 밀양시장은 25일 경남도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개별보상을 언급하며 1~2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공언했다. 이어 조환익 한전 사장은 26일 밀양을 방문해 엄용수 밀양시장과 몇몇 마을 이장을 만난 후 돌아갔다. 8월 1일에는 밀양지역 31개 단체가 가입한 밀양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지금 밀양에서는 장관, 시장, 한전 사장, 관변단체까지 합세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 밀양의 할매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핵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밀양 송전탑 싸움은 이 땅 어디에선가 계속될 것이다. ㄹ

| 들불야학을 잇다 |

인문학으로 '들불야학'을 잇다

-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부설 '들불학당' 사업단

글·사진 황해운 | <광주드림> 기자



특히 들불학당은 '진보적' 관점의 인문학을 지향한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관점으로 시대적인 문제, 삶의 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이었고, 70년대 말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주민운동의 불을 지폈으며 광주민중항쟁의 한복판에서 타올랐던 들불 야학. 들불야학의 강학들은 광주민중항쟁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지하유인물'과 '투사회보' 발행했다. 언론이 외면한 항쟁의 실상을 알렸고, 항쟁 지도부와의 참여를 통해 온몸으로 광주민중항쟁의 중심에 섰다. 들불야학의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은 야학 현장에서 함께 모여 상호간의 모순을 자각하게 되고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그 모순된 현실을 실천으로 바꿔보려 했다. 그 힘이 광주민중항쟁의 저력이었다.

배움을 매개로 상호 주체로 만났던 들불야학의 정신을 계승하는 집단이 생겼다. 인문학 교육 사업단 '들불학당'이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부설 '들불학당사업단'은 지난 4월 10일 정식으로 창립됐고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관계의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처음 만났고, 돈 노동 사랑 대중문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살펴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0년대 야학처럼 쌍방향 소통

들불학당은 설립취지가 뚜렷하다. 들불학당사업단 조진태 이사장은 말한다. "70년대 말 만들어진 들불야학은 당시 주로 있었던 검정고시 야학이 아닌 노동현실을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노동야학을 지향했었고 들불야학의 교사들이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뜻의 강학으로 불렀던 것처럼 일방향의 지식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했었다. 30여 년 전 들불 야학이 그랬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체로 만나 배움을 실천하는 인문학 교육 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지난 2009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지난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문학 강좌를 1년 간 진행하기도 했다. 들불학당사업단은 노동인문학 강좌를 좀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형식을 빌었다. 들불학당사업단은 ‘진보적’ 관점의 인문학을 매개로 광주시민이 소외된 현실을 극복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 이사장은 “방식과 과정을 중시하지는 것이 들불학당이 지향하는 바”라며 “상호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여러 장르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학 교사를 ‘강학’이라 지칭했던 들불 야학의 정신처럼, 들불학당은 일방적인 ‘교육’기관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진보적’ 관점의 인문학 지향

특히 들불학당은 ‘진보적’ 관점의 인문학을 지향한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관점으로 시대적인 문제, 삶의 문제,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하얀 밤을 지새운다.

들불학당사업단 이수자 연구팀장은 말한다. “들불학당사업단의 강좌의 형식은 누구나 똑같이 발언권을 갖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이다. 이는 어느 누구나 서로 주체로 만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직은 겨우 시작한 단계인 만큼 들불학당사업단을 외부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들불정신의 현재적 계승’이란 화두를 어떻게 구현시킬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백형기 대외협력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을 발굴하고 연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만큼 ‘수익’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다. 때문에 들불학당 사업단 내부 구성원들은 늘 들불야학의 현재적 계승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다. 그 안에 과거의 들불야학과 현재 들불학당의 접점이 있고, 앞으로 걸어 나갈 길도 오롯하게 놓여 있는 까닭이다. 

| 아시아토크 · 타이베이에서 열린 홍성담 판화전 |

‘동아시아에서 그 누가 예술활동으로 처형당했으랴’

글·사진 서 승 | 리즈메이칸대학 교수

© 대동문화 최옥수

타이베이에서 동아시아와 만나는 홍성담 오월판화전이 9월 11일부터 꾸린지에 소극장 2층 홀에서 열린다.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5월판화의 전시는 광주와 동아시아가 국가폭력에 대한 고발이라는 대목에서 예술로 만나는 기회가 된다. 2005년 2월 오키나와의 사키마 미술관에서 시작한 5월판화의 동아시아 순회전시는 교토, 오오사카, 제주 등을 거쳐 타이베이에서 일단락을 짓게 된다. 내가 홍성담 화백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91년 가을 암스테르담에서였다.

나는 1990년 2월 감옥에서 나온 다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초청으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 런던의 본부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거기 앰네스티 지부 사람들이 내게 홍성담 화백을 아느냐고 물었다. 만난 적은 없으나 옥중에서 이미 그의 5월판화를 접했으며,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일본의 집회에서 나도는 포스터, 소책자 그리고 글이나 전단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홍 화백의 판화는 너무나 낮이 익은 것이었다. 앰네스티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홍 화백이 '세계 3인의 예술가 양심수'로 선정되어 유럽에서 그의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베를린, 본 등 가는 곳마다 거리에 서서 홍 화백의 사진을 내걸고 전단을 뿌리고 서명을 모았다.

내가 홍 화백을 직접 만난 것은 1998년 서울 가나아트홀의 홍성담 개인전에서였다. 그때가 1997년 냉전하에 저질러진 한국 대만 오키나와에서의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배상의 실현을 위해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 국제 심포지엄운동을 타이베이에서 시작한 바로 직후였다. 나는 그 운동을 통해 제국주의



타이난 대학 도시건축 전공 이에 교수. 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때 동경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타이베이에서 의사로 재직중에 2·28사건 직후 백색테러로 처형되었다. 이철 전의원과 서승 교수 그리고 이에 교수.

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냉전 분단시대를 거쳐서 한국, 대만, 오키나와 사람들이 다같이 가혹한 역사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공통의 경험이 바로 일제가 지배하는 '동아시아' 질서가 만들어 낸 재앙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통일과 민족해방의 길은 바로 일제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지배 체계모니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은 바로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동아시아'를 민중 중심의 동아시아로 바꾸려는 역사적인 싸움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일제 지배 '동아시아' 질서가 만든 재앙

그렇게 본다면 5·18은 바로 국가폭력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역사의 가장 첨예한 대립의 분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광주시민들의 저항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의 불을 당기고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청산운동, 그리고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냉전 후의 동아시아의 과거청산과 올바른 역사인식운동의 선봉적 구실을 했다.

5월판화가 동아시아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타난 민중의 싸움과 삶이 바로 국가폭력에 맞서 싸워온 동아시아 민중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홍성담 화백은 광주시민군의 문화선전대원으로 항쟁에 앞장서서 싸우다가 처절한 좌절을 겪고 지옥을 보았다. 살아남은 홍 화백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여 진실을 은폐하려는 군부 지배의 암흑을 뚫고 항쟁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도주생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새긴 판화가 5월판화 '새벽'이다. 5월판화는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통해 한국에서 널리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주고 광주의 진실을 전하는 구실을 다했다. 그래서 5월판화는 구미, 일본 오키나와 동남아 등 여러 지역에서 전시되어 절찬을 받아 세계의 여러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2005년 오키나와전을 계기로 홍 화백 자신이 일제 침략의 발자취를 따라 만들어진 '동아시아'의 정치역사적인 성격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나와 함께 대만에 가서 장개석 치하에서 저질러진 국가 폭력의 흉부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공산당과의 싸움에 패배하여 1949년에 대만으로 도망쳐 나온 장개석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빨갱이 사냥'을 시작해 4년 동안 약 5,000명의 사람을 처형했는데, 이를 '50년대 백색테러'라고 한다. 그 테러의 희생자 속에 해방 후 1952년에 처형되기까지 민중 미술운동을 전개한 황령찬화백이 있다. 1947년 2·28사건 직후에 만들어져서 현재 일본의



타이난 대학 방문, 졸업식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이철 전의원과 서승교수 그리고 화가 홍성담.

카나가와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는 대형목판화 ‘공포의 검사(恐怖的検査)’는 올해 대만 각지를 돌아 황령찬회고전이 실시되면서 또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황령찬 화백을 추념하는 미술전

2006년, 나와 홍 화백은 타이베이 시내의 리유장리(六張犁) 시립 공동묘원의 비탈에 있는 자그마한 황령찬 화백의 묘를 찾았다. ‘동아시아에서 그 누가 예술활동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한 사람이 있으랴’ 홍 화백은 오염하면서 동아시아 민중미술의 선배에 대한 깊은 추념과 함께 묘전에 담배 한대를 불붙여 올렸다. 그때부터 황령찬 화백을 추념하는 미술전을 타이베이에서 여는 것이 홍 화백의 숙원 중 하나가 되었다.

이번 전시가 실현된 것은 대만의 극작가이고 소극장운동의 대부인 왕모린선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 왕선생은 1991년 무대예술집단 ‘Body Phase Studio’을 창립한 이래 반주류의 무대예술을 추구해왔고, 2005년 꾸린지에 소극장의 운영을 맡으면서 대만의 소극장운동을

주도해 온 대만을 대표하는 무대예술가다. 그는 올 가을에 그리스비극 '안티고네'를 번안해 동아시아의 분단과 분열의 현실에 다가서려고 한다. 극에는 한국에서 두 명, 중국대륙에서 한 명의 배우를 출연케 하여, 9월 15일 타이베이로 시작으로 10월 3~4일 부산에서 공연하고 그 후 광주, 중국의 북경에서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극에는 5월판화에 붙인 시들이 인용되어 5·18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꾸린지에 소극장은 대만 총통부(구 총독부) 정면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제시기 헌병 분견대 건물이었다가 해방 후에 타이베이시 경찰소로 쓰인 곳이다. 1999년 타이베이시 문화국에 이관되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동극단이 쓰고 있던 것을 2005년부터 왕모린 선생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극장 2층 홀에서 실시되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판화전이 아니라, 식민지시기와 독재시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분단된 동아시아의 현실을 시야에 두고 있으며, 연극과 판화, 그리고 시가 어울리는 종합예술로 매우 의미심장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아마도 이번 전시에서는 5·18에 응축되는 동아시아의 국가폭력과 민중의 저항, 분단 속에서 찢겨진 인간의 울부짖음과 훼손된 인간 회복의 꿈과 이상이 고스란히 그 몸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5**

서승徐勝 1945년, 일본 京都생,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법학부 특임교수비교인권법, 동 코리아연구센터 고문. 동아시아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 회복과 화해, 및 평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창비, 2011), 『옥중19년』(역사비평사, 1999) 등 저서가 있다.

행사안내

황령찬黃榮燦기념 홍성담 오월판화 타이베이

- 장소 : 꾸린지에 소극장 2층 홀(Tel : 886-2-2391-9393 Fax : 886-2-2391-5757)
- 기간 : 2013년 9월 11일(수)~17일(화)
- 특별기획 : 13일(금) 갤러리 토크_홍성담
- 홍성담 연출의 상황극 공연 : 14일(토)
- 오프닝갤러리 : 토크(홍성담)
패널디스커션(홍성담, 왕모린, 윤범모, 야마구치 이즈미, 이나바 마이)
- 오프닝 파티연락 : 이나바 마이(vientoviento@naver.com), 이호윤(lottppa@daum.net)

※ 단체참관은 9월 13일~15일로 하고, 한국, 일본의 참가희망자는 위 연락처에 문의를 바랍니다.

| 오월문화사 · 5월 민중가요 |

‘그대 노래가 사라진다 해도 나는 그대 노래를 부르리’

- 광주노래운동과 정세현

글 · 정영대 | 편집위원



© 광주드림

그의 노래가 '어두운 죽음의 시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따뜻한 햇볕 한줌' 이었고 '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햇불'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가 '고달픈 이들의 가슴을 축이는 한 사발 술'이고 '지친 이들의 힘을 돋우는 한 그릇 밥' 이어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1980년 5월 21일 낮 1시였다. 전남도청의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도 지켜보던 사람들도 일순 동작을 멈췄다.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또 누군가는 거수경례로 태극기를 응시했다. 그리고 일부는 애국가를 따라 불렀다. 단순히 오랜 습(習)에서 우러난 조건반사적인 행동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광주시민이 폭도와 빨갱이로 매도되는 현실에 대한 무언의 항의였다. 애국가를 따라 부름으로써, 국기에 대해 최대한 경의를 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애국시민임을 온몸으로 강변하는 일종의 시위였다. 하지만 순진한 착각이었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국민의 군대를 사병으로 삼고 전방을 비워가며 후방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군사독재세력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맹목적 자기최면에 불과했을 뿐이다.

오히려 계엄군에게 애국가는 약속된 신호에 불과했다. 애국가와 동시에 M16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계엄군들이 광주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집단발포를 시작한 것이다.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병들은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실시했다. 시위는 금세 핏빛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총격은 사격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0분 남짓 계속됐다. 이날 발포로 광주시민 54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그런데도 5·18 항쟁 전 기간 동안 광주시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발악하듯 애국가를 불렀다. 안익태의 친일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훗날 사람들은 애국가가 국민을 학살하는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다.

5·18 때 가장 많이 불린 노래, '홀라송'

5·18 광주항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불려 졌던 노래로는 단연 '홀라송'을 꼽을 수 있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홀라 홀라. 무릎을 꿇고 사느니 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 전두환을 처단하자. 홀라 홀라.’

이 노래는 ‘손벽치며 빙빙 돌아라’로 아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동요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이 사기진작을 위해 불렀던 ‘When Johnny comes marching home’이 원곡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짜 뿌리는 따로 있다. 아일랜드의 반전노래 ‘Johnny I hardly knew ye’가 원조다. 가사의 즐거리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돌아온 남편을 원망한다는 내용의 반전 노래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군가로 자리 잡은 뒤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선무방송을 할 때 배경음악으로 썼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 두부처럼 잘리어진 어여쁜 너의 젖 가슴 / … / 왜 쓰았지 왜 찢렸지 트럭에 실고 어딜 갔지 /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 천의 핏발 서려 있네 /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피! 피!’

5·18 광주를 가장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노래 ‘오월의 노래’의 일부다. 5·18 항쟁 이후 불리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시기와 작사·작곡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원곡은 프랑스 샹송가수 미셸 폴라레프Michel Polnareff가 부른 ‘누가 이 할머니를 죽였나Qui a tue grand maman’를 행진곡 풍으로 바꿔 개사한 노래다. 입을 위한 행진곡, 광주출전가와 함께 80~90년대 5·18 집회에서 빠지지 않고 단골로 불렸다.

1980년 5·18 당시 민중들은 자기를 온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노래형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노래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데도 서툴렀다. 그래서 일본군가에 노래가사만 바꿔 부르거나 심지어는 독립군가로 둔갑한 관동군가를 부르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외국의 구전민요나 교회의 복음성가, 외국 번안곡에 기대 민중들의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노래가 형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절박성을 표현하고 민중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매체로 자리 잡은 이유다.

광주는 5·18의 참상을 목도하고 비극을 경험하면서 노래가 갖는 힘에 주목했다.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고 군사독재와 투쟁을 조직하는 새로운 저항의 무기로 노래라는 매체에 눈을 뜬 것이다. 그 때문일까? 1980년대 광주의 노래에서는 서정적인 선율과 아픈 현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경향성이 엿보인다. 정오차의 '바윗돌', 김원중의 '바위섬', '직녀에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노래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금지곡으로 묶였지만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애창되며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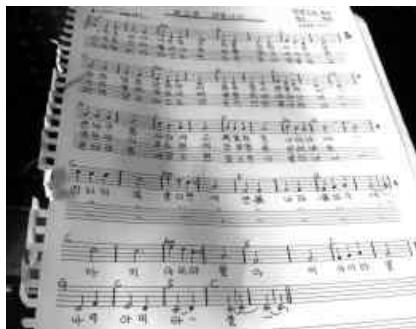
특히 1982년 '님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은 광주에서 새로운 노래운동의 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82년 2월 20일 진행된 5·18 항쟁지도부의 일원인 윤상원과 들불열사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서 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다. 소설가 황석영이 통일운동가 백기완의 시 '뗏비나리'를 가사로 바꾸고 김종률이 곡을 붙여 그해 4월 '넋풀이-빛의 결혼식'이란 비합법 음반에 수록됐다.

광주를 움직인 노래, '광주출전기'

그리고 광주는 1980년대 광주노래운동을 대표하는 정세현이라는 출중한 예인



범능스님.



'빛고를 엄불나라' 악보.

을 만나게 된다. 정세현은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노래패 친구와 우리소리연구회를 이끌며 광주노래운동의 최전선에서 복무했다. 1989년부터는 전남 진도에 머물며 인간문화재 조공례에게 2년 동안 민요를 배워 국악의 대중화에도 힘썼다. 그의 노래가 민족적 형식에 민중적 내용을 잘 구현했다고 평가 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다.

정세현은 1985년 시인 고규태와 ‘광주여 오월이여’ 음반을 제작하면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민중항쟁의 전과정을 노래와 다큐멘터리 낭송 등으로 엮어 냈다. 여기에 ‘광주출전기’가 수록됐다. 그는 광주출전가를 비롯, 혁명광주, 꽃아 꽃아,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의연한 산하, 통일의 나라로 가자, 어머니의 손, 우리님은 언제와요 등 80년대 민중가요를 대표하는 술한 노래들을 작곡했다.

정세현은 1993년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출가해 불교에 귀의한 뒤 전남 화순 도곡면에 불지사를 세우고 “음악을 수행의 방법” 삼아 노래인생의 1막2장을 열었다. 그 치열한 수행의 과정에서 ‘오월의 꽃’ (1집), ‘먼 산’ (2집), ‘삼경에 피는 꽃’ (3집), ‘무소의 뿔처럼’ (4집) 등 네 장의 서정성 짙은 노래 앨범과 ‘나무아미타불’, ‘지상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일곱 장의 명상음반을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새찬불송 1집 다섯 번째 노래 ‘나 없으라’를 마지막 유작으로 남기고 입적했다. 세속 50세, 법랍 스물이었다.

어둠 산천 타고르는 작은 햇불

“버들가지 관음손길 뿌리나니 / 맑은 물아 꽃잎마다 이슬 젖듯 / 내리소서 온 누리에 나 없으라 / 공덕의 물 죽음마저 되살리니 / 산 같은 피 흔적 없네 텅진치라 / 연꽃으로 피어지이다 나 없으라” 〈나 없으라〉

정세현의 오랜 지기였던 시인 고규태는 ‘그대는 왜 우리에게 노래는 안 불러주고 / 모르는 척 영정의 사진 속에 드시어 / 긴 침묵인가 무언의 삼매경인가’라고 스님의 죽음을 슬퍼했다.



© 광주드림

범능 스님의 다비식.

나종영 시인도 ‘그대 노래가 사라진다 해도 / 나는 그대 노래를 부르리 / ... / 그대 노래가 꽃잎처럼 흩어진다 해도 / 나는 그대 노래를 샘물처럼 부르리’ 라고 고인의 노래인생에 최고의 찬사를 헌정했다.

고인은 갔지만 그의 노래는 남았다. 시인의 말처럼 그대 노래가 사라진다 해도 나는 그대 노래를 부르리라.

그의 노래가 ‘어두운 죽음의 시대’를 버릴 수 있게 해준 ‘따뜻한 햇볕 한줌’이었고 ‘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햇불’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가 ‘고달픈 이들의 가슴을 축이는 한 사발 술’이고 ‘지친 이들의 힘을 돋우는 한 그릇 밥’이어서다. 그리고 그의 노래가 ‘이 땅 낮은 이들의 삶속에 오래 오래 살아 숨 쉬는 그런 생명의 노래’로 ‘하늘 첫 마을부터 땅끝 마을까지, 무너진 집터에서 저 공장 뜰까지, 녹슨 철책선 넘어서 지뢰밭까지 평화와 해방과 통일의 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던 까닭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卍

‘장계범 독침사건’의 진실은?

글 · 오승용 | 전남대 연구교수

1. 개요

독침사건을 조작한 장계범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술집을 운영하던 중 5·18항쟁 발발을 목격한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후퇴한 5월 23일 장계범은 전남도청 주변을 배회하

다 정향규 등을 만난다. 1980년 계엄보통군법회의의 공판조서에 따르면, 독침사건의 당사자인 장계범과 정향규는 전남도청에 들어가 계엄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소위 ‘정보부’를 조직해 계엄군의 이동상황 등을 알아보려 했으나, 도리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군들에게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장계범은 정보부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 “도청 내에 들어가 보니, 간부들 중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신원을 조사한 후 경찰과 보안대 첩보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군들이 계엄군의 첩자로 의심하자 5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 도청 1층 복도



장계범 독침사건을 다룬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17일자 기사.

독침은 처음부터 없었다.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이 봤던 문제의 '침'은 모나미볼펜을 개조한 아주 조악한 것으로 간첩들이 휴대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당시 전남대병원의 진료 기록과 담당의사의 증언기록에 따르면 장계범의 몸에서는 독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에서 바늘이 꽂혀 있는 볼펜 1개를 주운 것을 기화로 도청 밖으로 빠져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정향규에게 독침을 맞았다면서 등을 빨아달라고 부탁한다. 정향규도 장계범의 등을 빨다가 역시 독에 중독된 것처럼 몸을 떨며 쓰러지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군들이 정말 독침에 맞은 것으로 오인하여 두 사람을 전남대병원으로 후송했다. 병원에 입원한 장계범은 오후 12시경 독침사건 조작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병원을 탈출, 자신의 집에 은신하다 사후처벌을 면하기 위해 5월 26일 오전 9시 경 합수단에 자수한다. 합수단에서는 장계범과 정향규를 허위사실 조작 유포 및 사회불안 조성 혐의로 입건 송치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석방조치했다.

2. 독침사건의 정치적 악용

5·18항쟁이 수습과 투쟁의 기로에 서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독침사건'은 5·18항쟁을 폭도, 불순분자, 간첩의 난동으로 매도하는데 악용되었다. 당시 언론은 근거도 없이 '독침'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간첩의 소행으로 보도했다. 5월 24일 남파간첩 이창룡이 독침을 지닌 채 광주로 가려다 서울역에서 붙잡혔다는 당국의 발표와 맞물려 독침사건은 광주시민들에게 불신과 공포감을, 국민들에게는 5·18항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심어주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보수세력들은 장계범 독침사건을 근거로 5·18민주화운동은 간첩의 사주로 불순세력들이 난동을 부린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의혹

장계범 독침자극극에 대해 당시 도청에서 윤상원 등과 함께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이양현은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3차공판'에서 "알고 보니 (장계범은) 지도부 동향을 계엄군 측에 알려줬었고 (독침사건은) 보안사측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시

민군으로 참여했던 다수의 인사들 역시 독침사건을 보안사가 조작한 사건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장계범과 정향규 두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 간 직후 사라져 버린 데다, 항쟁 직후 이들이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풀려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장계범은 항쟁 진압 직후 상무대 연병장에서 복면을 쓴 채 계엄군에게 시민군 지도부를 식별·지목해준 장본인이었고,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장계범 인터뷰, 한겨레신문 1996. 5. 17.). 결과적으로 장계범은 독침사건을 일으켜 5·18항쟁을 간첩과 연루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항쟁이 진압된 이후에는 시민군 지도부들을 지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광주시민들에게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은 또 있다.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 신군부는 이창용 간첩 사건 발표를 통해 독침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창용사건 발표 하루 만에 전남도청 현관에서 장

계범이 있지도 않은 독침을 맞았다는 자작극을 벌였다. 이창용간첩사건과 독침사건이 연결되어 5·18항쟁이 간첩 등 불순세력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이미지, 개연성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장계범이 독침사건을 조작한 5월 25일 오전의 상황은 독침사건을 조작해서 빠져나와야 할 정도로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던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군의 최후통첩을 앞두고 시민군이 수습파와 투쟁파로 나뉘어 도청 안이 어수선했다. 특히 독침사건이 일어난 오전 7시~8시 사이는 식사 및 경계근무 교대로 시민군의 도청 통제가 가장 느슨한 시간대였다.



경향신문 1995년 12월 12일자 7면 기사.



경향신문 1989년 1월 27일자 기사.



한겨레신문 1995년 5월 27일자 기사.



경향신문 1988년 12월 7일자 기사.

4. 결론

독침은 처음부터 없었다.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이 봤던 문제의 ‘침’은 모나미볼펜을 개조한 아주 조악한 것으로 간첩들이 휴대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당시 전남대병원의 진료 기록과 담당의사의 증언기록에 따르면 장계범의 몸에서는 독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정향규 역시 아무런 신체이상도 없었다. 1995년 서울지검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에서도 독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침은 없었고, 정작 독침사건의 당사자는 상무대에서 항쟁 지도부를 지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간첩의 소행이라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광주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국민들에게 5·18항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독침사건이 장계범의 조작극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남은 문제는 혹시 누가 사주하지는 않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제 장계범이 대답할 차례다. ㉔

총을 든 남성만이 5·18의 주인공일까?

글·이정우 | 자유기고가

총과 남성이 전면으로 떠오르고, 밥과 여성은 심층에 가라 앉아 있다. 그렇게 해야만 견디고 돌파할 수 있었던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의 전략으로 '총과 남성'의 강조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옳았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총과 남성'이 5·18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옳지 않다.

신묘역에 설치된 조형물, 거기 여성은 없다.

© 광주드림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다. 기록은 그 다음이다. 역사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철저하게 해석의 결과물이다. 1919년 3월 1일 조선 땅에서 어디 만세운동만 있었겠는가. 누군가는 발을 갈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날은 만세운동의 날이다. 당대의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만세운동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총의 있고 없음에서 통상적인 시위 진압과 5·18을 구분할 수 있다. 계엄군이 조준사격을 했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 총을 확보한 시민군이 조직되면서 5·18은 한국현대사의 모든 항쟁과 자신을 구별시켰다. 총은 계엄군과 시민군의 공유물이었다. 총을 회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바탕 '수습' 과정을 거친 후에 항쟁 주체는 재구성됐다. 총에 맞아 쓰러져 죽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이 총을 내려놓았을 때 열흘 간의 항쟁은 일단락 됐다. 결국 5·18광주민중항쟁 기록물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 중 하나가 '총' 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총은 권력의 상징이며, 남성성의 대우물이다.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모습을 띤 지배권력과 시민군으로 대표되는 저항권력의 공통점은 '총' 이었다. 이 때문일 것이다. 5·18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그것이 계엄군이든 시민군이든 '총을 든 남성' 에 방점이 찍혀 있다. 5·18기록의 표준적인 틀은 총을 든 남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아 그 주변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방식인 것이다. 예컨대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총을 다룰 수 있었고, 여성들은 총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먹밥을 지었고, 총을 다룰 수 없는 데다 미성년 자이기까지 해서 고등학생들은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는 식이다.

이 진술이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상당한 정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진술의 핵심인 '총을 든 남성' 이 5·18광주민중항쟁을 '과다대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엔진과 바퀴가 자동차의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차는 완성되지 않는다. 총을 든 남성이 5·18의 중추라 할지라도, 그것을 5·18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항쟁의 저변은 바다에서 뚝뚝으로 쪼그라든다. 기록이 '총을 든 남성' 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면, 5·18은 민중항쟁이 아니라 게릴라전이 되어 버린다.



80년 5월 당시 기관총으로 무장한 시민군.

© 황중건

여성은 왜 심층으로 가라앉았나?

지난 해 『광주, 여성』(후마니타스 刊)이라는 책의 편집을 맡았었다. 5·18민중항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여성 19명의 구술을 활자화시키는 작업이었다. 녹취록을 꼼꼼히 들어야 했는데,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항쟁에 동참한 그(녀)들의 마음 또한 충분히 절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을 들고 싸웠던 이들의 결기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먹밥을 지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서열화’ 시킨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든 것이다. 물론 죽음을 각오했던 이들의 결기를 살아남은 자들이 좀 더 무게 있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쟁을 총체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주먹밥과 총은 그렇게 이질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록에 이르러서는 사정이 다르다. 총과 남성이 전면으로 떠오르고, 밥과 여성은 심층에 가라앉아 있다. 그렇게 해야만 견디고 돌파할 수 있었던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의 전략으로 ‘총과 남성’의 강조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옳았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총과 남성’이 5·18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옳지 않다. 몽골 기병이 아닌 이상 ‘보급’ 없는 전투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공간에 사적 소유의 열쇠가 채워진 도시 한 복판에서 보급 없는 전투가 며칠을 버틸 수 있겠는가. 애절한 마음 가득한 주먹밥 보급으로 결기를 다지고, 그 결기가 다시 보급을 촉진하는 투쟁의 선순환이 80년 5월 광주에서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보급은 사라지고 투쟁만 남았다. 밥은 실종되고 총만 떠올랐다.

이러한 역사 인식에는 김영삼 정부 들어 추진된 '보상'이 크게 작용했다. 화폐로 환원된 보상의 본질은 항쟁의 역할을 측정해 계량화시키는 것이었다. 계량화의 기준은 피해의 정도였다. 감옥을 갔느냐, 안 갔느냐. 죽었느냐, 상처냐. 상처라면 병원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했다.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했으므로 투쟁의 계량화는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보상을 위해 측정한 계량이 투쟁의 '기여도'로 치환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죽지 않음은 물론, 외상도 없고, 감옥에도 가지 않은 '여성'의 역할은 더 깊은 심층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역할은 더욱 크게 자리잡았다. 다만 여성들은 "5·18은 광주시민 모두가 만든 것이여"라는 말을 항변처럼 남겼다. 구술 속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말이다.

주먹밥을 짓는 여성의 참 의미

남성 중심 가부장주의의 억압적 질서가 여성의 역할을 심층으로 가라앉힌 핵심적인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심층으로 가라앉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가부장주의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가로세로로 작동했을 수 있다. 이 영향들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면 우리는 5·18에 대한, 그리고 역사와 해석, 역사와 기록에 대한 훨씬 풍부한 자료들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면서 '총과 남성'이 사실상 5·18의 대표 주자로 굳어져 버렸다. 이제 심층에 가라앉은 여성의 역할을 표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범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주먹밥을 짓는 여성'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오류이다. '주먹밥을 짓는 여성'은 5·18 기간 내내 상수로 존재했던 어떤 집단, 어떤 활동의 다른 표현이다. 존재증명이 어려웠던 ning마주이나 스스로를 유폐시킨 유희업소의 여인들. 계엄군의 총칼을 눈앞에 두고서도 "내 아들"이라는 허위 증명으로 젊은 청년의 목숨을 살



어느 해 망월동에서 열렸던 5·18사진 전시. 그 사진들 속에서도 여성을 찾기는 힘들다.

© 광주드림

린 어머니들, 살아남아 항쟁을 지속시킨 당대의 고등학생을 비롯한 후세대들. 이들 모두가 ‘총과 남성’에 가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여성들’에 다름 아닌 것이다. 어쩌면 ‘총과 남성’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일각을 떠받치고 있는 물밑의 거대한 뿌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주먹밥을 짓는 여성’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단지 ‘주먹밥을 짓는 여성’을 글자 그대로의 수준에서 복원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총과 남성’을 끄집어내는 행위에 머물 것이다.

“5·18은 광주시민 모두가 만든 것이여, 나는 운이 나빠 가지고 잡혀 가고 감옥에 가고 그랬제...” 항쟁 당시 방송을 담당했던 한 여성의 말이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투쟁했는데 ‘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가 더하거나 덜했다는 이야기다.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발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5·18을 만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해석틀이 담겨 있다. 죽음이 가장 슬프다고 해서 죽음 아닌 항쟁을 낮춰보는 시각, 총이 더 결연했다고 해서 총 아닌 투쟁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 증명 가능한 것만을 역사로 끌어 올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등이 5·18의 지평을 좁힌다. 전민항쟁을 게릴라전으로 축소해버린다. 우리들 모두의 몸부림을 그들의 선도 투쟁으로 한정해버린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분열된다.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미 분열됐다면 그것들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여성’에 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

독자의 소리



주먹밥을 처음 접해본 경상도 진주출신 독자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느끼는 바가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네요. 현대사나 사회에 관심이 덜한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확실히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이 없다보니, 그 일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글을 읽어 나가면서 5·18에 대해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 했구요. 어처구니없는 권력에 희생되어 아프다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소리를 들어주려는 사람들마저 차단해버렸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예전에 봤던 연극 <짬뽕>이나 <

푸르른 날에>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뿐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진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긴 하지만,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먹밥을 통해 저처럼 작은 관심이나마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건혜_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교육은 사회화의 가장 적극적인 방식 중의 하나다. 따라서 한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대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자신의 기억을 강화해 내면화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광주민주운동이 최근 권력집단을 통해 조롱되고 폄훼되어 젊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현상을 보면서 첫째,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는 이런 현상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

다는 예상을 해 본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인권과 자유, 평화의 가치로 접근하는 방식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안타깝게 느껴진다.

최대철_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주먹밥』을 드려요.

『주먹밥』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먹밥』을 읽고 느낀 점,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소재, 편집실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보내주신다면 이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주먹밥』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며, 향후 『주먹밥』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문의_ 5·18기념재단 계간 『주먹밥』 담당자 전화_ 062-360-0534 팩스_ 062-360-0519
 메일_ 3600534@daum.net 홈페이지_ www.518.org



» 총무기획팀



• 5·18웹툰 ‘열두살 삼촌’ 연재

재단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젊은 세대들이 관심 갖고 즐겨보는 웹툰을 제작해 7월 4일(목) 예고편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6개월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5·18웹툰 ‘열두살 삼촌’을 연재한다. 이는 주인공인 12살 민국이가 새로 산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1980년 5·18 때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고 자폐 증세까지 앓게 된 삼촌의 당시 나이는 12살, 민국과 삼촌이 12살이라는 나이와 자전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자전거를 타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함께 5월 정신을 되살려내는 동화이다. 5·18웹툰 ‘열두살 삼촌’은 2011년 5·18 문학상 동화 당선작인 원작 ‘열두살 삼촌(황규섭)’을 붓(BooD)이 각색하고 그림을 그렸다.

재단임원 아시아 기념시설

현장워크숍 개최(6. 24~29)

재단은 중국 간도지방에서 임원 아시아 기념시설 현장워크숍을 개최했다. 재단설립 20주년을 1년여 앞두고 기념사업 준비와 5·18왜곡평화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현대사의 갈등과 모순의 시발인 한반도 분단상황을 재인식하고자 했다. 또한 워크숍 중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및 731부대 전시관의 전두환 방문 홍보물을 발견하고 귀국 직후 “기념시설의 취지에 부적절한 인사의 방문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관련 홍보물의 철거를 요청했다.

사무처 하계워크숍 개최

(7. 18~19)

재단은 KT지리산수련관에서 2013년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 일정을 점검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브레인스토밍 등 내부교육을 겸하여 진행됐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우수 사이트 선정

재단 홈페이지(www.518.org)가 정보소외계층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우수사이트로 다시 한 번 선정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시행한 제29회 웹 접근성 심사결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아 2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Web Accessibility)란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사이트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인증마크이다.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한 5·18기념재단 홈페이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자막 제공, 시각 장애인(전맹, 저시력) 화면읽기 프로그램 통해 해당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및 화면배색 구성,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 위해 어떠한 보조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로 홈페이지 이용가능 하도록 구현 하는 등 장애인 및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 준비TF 구성

재단은 2014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 추진 사업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발전 방향과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재단(이사장)의 자문기구로서 5·18기념재단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TFT, 위원장 노철 전남대 교수, 총 12인)를 구성했다.

»» 교류연대팀

• 2013 5·18아카데미 I, II, III 개최(7. 29~8. 23)



재단은 민주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 정의를 지키는 시민사회 연대'라는 주제로 5·18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아카데미 I은 국내시민사회활동가 전문교육과정으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 5·18교육관에서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19일부터 24일까지는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하는 국외연수로 이어졌다.

아카데미 II는 19개국 24명의 국외시민사회활동가가 참여해 7월 29일 서울 연수를 시작으로 강원도 인제, 광주 등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 신장을 위한 강의, 기념사업단체 방문

교육, 참가자 활동발표, 지역 문화체험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 15일 수료식을 했다.

아카데미 III은 국내기념사업단체 활동가 및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아카데미 I과 함께 국내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9일부터 24일에는 국외 아시아 기념관 시설 현장 워크숍을 통해 '오키나와평화기념관', '사키마미술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52명의 국내외 시민사회활동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2013 5·18아카데미 I, II, III에서는 실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 강좌와 더불어 각자의 실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 자원활동가 하계수련회 (7. 25~26)

재단 자원활동가 하계수련회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해 기념시설을 답사하고 고은미술관에서 '그날의 홀라송'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5·18민주화운동 사진전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 자원활동가 여름학교(8. 7~9)

재단 자원활동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실시된 이번 여름학교는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5·18아카데미와 더불어 진행된 이번 여름학교는 아카데미 강좌 중 재단 자원활동가들에게 유익한 19개 강좌를 선별하여 진행되었다. 수료 이후 제출된 보고서 중 우수작을 선발해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상품으로 증정했다.

5·18청소년평화대사 여름학교

5·18청소년평화대사 여름학교는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의 강연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파푸아뉴기니와 인권, 케냐의 국가폭력대응활동, 인권운동가의 활동전략, 인권 기반한 개발 등 총 24개의 강의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 12일~13일은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들(5·18아카데미2 참가자)의 활동경험과 아시아의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 교육문화팀



• 제12회 5·18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8. 23~25)

제12회 5·18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가 <2013 청년상상, 불가능의 세계를 켜다>라는 주제로 5·18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토론 대회는 런던올림픽 개막식 영상과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예선을 치르고 전국 15개 시·도 296팀(2인 1팀) 중 심사를 거쳐 총 24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국

회의장상에는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2A's>팀이, 안전행정부장관상에는 서울 하나고 <신세계>팀이, 국가보훈처장상에는 경남 거창고 <아우라지>팀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인되는 삶>이란 주제로 천정배 전 장관의 특강과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위한 유기농가수 사이의 문화공연도 펼쳐졌으며 이밖에도 연대하고 화합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공동체놀이와 참가자 스스로의 생각과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자유토론도 펼쳐졌다.

5·18수업사례 우수교사
국외연수 개최(8. 4~8)

5·18민주화운동 수업사례 우수교사 국외연수가 “잊혀진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8월 4~5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 기념비와 블라디보스토크역, 우수리스크의 이상설 의사 기념비와 발해 성터, 최재형 생가, 대한민국의회, 고려문화센터, 25년학교를 방문했으며, 8월 6~8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지, 포자르스코에 조선인학살 추모비(미즈호 학살), 홀름스크 제지공장,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 등 우리 역사의 아픈 현장을 찾았다. 사할린스크에서는 한인문화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할린 한인교육원, 노인회, 이산가족회를, 홀름스크에서는 한인이산가족회를 방문해 망국과 무국적 상태의 설움에 대해 듣고, 현장 안내도 받았다. 재단에서 준비해간 영상자료와 기념품을 비롯 참가

자들과 함께 모은 성금을 전달했고, 사할린 내 유일한 한글신문인 새고려신문 (<http://www.cafe.naver.com/sekoreasinmun>)의 배 워토리아 사장(한국이름 배순신)이 인터뷰를 요청해와 5·18교사 국외연수의 취지와 5·18민주화운동, 한국에서의 사할린에 대한 관심사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5·18민주화운동수업 사례공모에서 선발된 교사 11명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1명, 기간 주먹밥 취재기자 1명, 재단 실무자 2명 등 총 15명이 함께 했으며, 참가자들은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의 잊혀진 역사를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더 발전적인 5·18민주화운동 수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8회 5·18청소년연극제
여름 캠프(8. 9~11)

새롭게 바뀐 제8회 5·18청소년연극제 여름캠프가 “청소년, 오월을 연극

으로 만나다”를 주제로 전남 담양 한빛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여름캠프는 1, 2차 예선을 거쳐 선발된 서울, 경기, 포항, 온양 등 전국 11개 연극동아리 15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되었으며, 2박3일 동안 오월길 답사와 연극·마당극 워크숍을 통한 즉흥극 제작, 장기자랑콘서트 ‘무아지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위에서 자신의 끼와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참가팀은 캠프 이후 사회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주제로 한 연극작품을 공연하게 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시상이 이뤄진다.

2013년도 5·18나눔장학생 선정

재단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5월 소외계층 및 재단, 광주거주 극빈층·다문화가정·장애인학생(총 12명)에게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3일 나눔장학금을 지급했다.

»» 진실조사팀

• 5·18기록물 온라인 전시 <님을 위한 행진곡> (9. 1~10. 31)



재단은 5·18기록관 홈페이지(<http://archives.518.org>)를 통해 '영원한 5월의 노래,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전시주제로 <님을 위한 행진곡> 온라인 전시를 한다. 이번 전시 자료는 MBC 대학가요제 출신 작곡가 김종률 씨가 직접 쓴님을 위한 행진곡 첫 악보, 황석영 씨에 의해 재창작된 가사의 모태가 된

백기완 선생의 시 '뒹비나리', 살아남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을 남겨두신님을 위한 행진곡의 두 '님'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 사진, 치열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스스로 살아남은 영원한 5월의 노래,님을 위한 행진곡 현재 악보 등이다. 이 전시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 내 팝업창이나 5·18기록관 홈페이지(<http://archives.518.org>)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볼 수 있으며 지난 전시도 5·18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5·18기록물 온라인 전시

<1980년과 2013년의 닳은 꼴 찾기>
(7. 1~8. 31)

재단은 5·18기록관 홈페이지(<http://archives.518.org>)를 통해 <1980년과 2013년의 닳은 꼴 찾기> 온라인 전시를 했다. 이번 전시 자료는 진상 조사를 위한 시도조차 없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민군을 폭도, 극렬분자, 심지어 고첩(고정간첩)으로 왜곡한 1980년 5월 21일자 계엄사령관 이희성 담화문, 5월 22일

자 국무총리 박충훈 담화문, 문화공보부 유인물, 5월 22일, 24일, 27일자 신문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동일한 조직에서 만들어 낸 것처럼 같은 단어와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1980년 왜곡 자료들이다. 또한 1980년의 폭도, 간첩에서 북한 특수부대, 북한군으로 단어만 살짝 바뀐 뿐 동일한 왜곡을 선동하고 있는 종편 방송과 왜곡 도서 등 대표적인 2013년 왜곡 자료를 볼 수 있다.

아시아저널 7호 발간

아시아저널 제7호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과 동아시아'를 특집 주제로 삼고 한국전쟁이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글들을 게재한다.

망각을 지우는 유일한 무기, '기억투쟁'

연해주와 사할린의 평원은 아름다웠다. 제주의 초원 풍경을 여러 겹으로 겹쳐 놓은 것 같았다. 역설적이게도 그 아름다움 안에 죽음으로도 덜어내지 못할 한이 쌓여 있었다. 나락이었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얼어붙은 강을 건너 국경을 넘었던 그들은 이용만 당한 채 일어 죽고 굶어죽었다.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모두에게 버림 받았던 사람들. 세 나라에 모두 발을 걸쳤으나 세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무국적의 조선인들. 그들이 지난 150년 동안 서럽게 씨내려갔던 '이주의 역사'는 이미 지워지고 있었다.

사실 망각의 역사는 늘 되풀이되고 있다. 역사를 지우려는 세력들의 음모는 늘 치밀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것들은 망각에 묻힌다. 따지고 보면 역사를 지키는 것도 치열한 싸움이다. 『주먹밥』 기을호의 기획 주제를 '역사는 흐른다'로 잡은 이유다.

전두환이란 이름은 부끄러운 역사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며 막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그의 일가에 대한 '강제 추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과연 적들의 사회에서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 "이번 정류장은 문화의 전당역입니다." 어쩌면 이 안내방송에 일상 속의 오월 지우기라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단언컨대 옛 전남도청은 구체적 형상으로 남아야 한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놓은 5·18 민주광장은 우상을 기념하는 닫힌 공간이 아닌, 형상의 기억을 재현하는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한다. 왜 '문화의 전당역'의 이름은 '옛 전남도청역'이 될 수 없을까? 망각이 기억을 잠식하다 보니 이전 정부가 초등학교 글쓰기까지 간섭한다. 그렇게 역사는 지우려는 자와 끝까지 기억하려는 자의 사투 속에서 천천히 흐르고 있다.

'공간+증언'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두 번째 이야기다. 천주교회 광주대교구는 5·18 당시의 사진을 찾는 데 열심이었다. 은폐된 진실을 알려내는 데 생생한 사진 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무도 사진 내놓기를 꺼려하던 그 때 연합뉴스 나경택 사진기자는 뭔가 달랐다. 사진을 내 놓으며 그가 했던 말, "필요하면 써라. 내가 찍은 사진은 내 소유가 아니다. 광주의 것이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써라." 감동이었다.

'주먹밥이 만난 사람'은 버마 민주화운동의 정신적인 두 축인 탄계와 민포나임을 만났다. 한 사람은 국경에서 무장 투쟁을, 다른 한 사람은 버마 내부를 지키며 군부에 맞서 싸운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뚜렷함이 읽혔다. 부끄럽고 또한 부러웠다.

'너머+너머' 밀양 송전탑 사태를 담았다. 살인적이었던 올 여름 불볕 더위에 밀양의 할매들은 76만5000볼트 고압 송전탑에 맞서 싸웠다. 흔한 송전탑은 154kV가 대부분이고 345kV가 가장 고압이다. 765kV는 345kV의 5배 전력량을 수송한다. 송전탑의 높이만 해도 80~140미터, 40층 아파트와 맞먹는다. 그 아래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망각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억투쟁' 뿐이다.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는 열려 있다. 기을호를 만들어 그 걸 느꼈다.